

# 신라의 삼국통일 전후처리와 통일인식\*

정덕기\*\*

- 
- I. 머리말
  - II. 7세기 전반 삼국정립의 폐기와 전쟁 목적의 변화
  - III. 백제·고구려 멸망 전후처리와 양국 평정 교서의 함의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이 글은 신라가 643년에 인식한 삼국통일전쟁의 연속성, 660·668~669년에 진행된 양국 멸망 전후처리의 관계를 검토하고, 양국 평정 교서의 함의를 통해 신라의 삼국통일 인식을 논의하였다.

신라는 중고기 전반 삼국정립을 추구하였다. 삼국정립은 삼국 공존을 인정하고, 신라의 삼국 항쟁 주도권 확보, 신라 우위의 삼국 관계 정립에 목적이 있었다. 643년 신라는 전쟁 목적을 삼국정립에서 양국 멸망·평정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삼국통일전쟁 전후처리에 영향을 미쳤다. 668년 신라는 양국 멸망에 대한 헌부례를 시행하였다. 669년 신라는 양국 평정 교서·사면령을 반포해 나당전쟁을 대비하였다. 양국 평정 교서 반포의 함의는 신라의 양국 멸망·평정 인식을 삼국통일 인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삼국정립, 삼국통일, 청병, 전후처리, 헌부례

---

\* 이 글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4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7세기 후반 삼국의 격변과 신라의 삼국통일’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강사.

## I. 머리말

신라는 551~554년 북진·서진을 통해 16군과 한강 하류를 확보하였다. 6세기 후반 신라의 영역 팽창은 진흥왕이 삼국정립(三國鼎立)을 도모한 결과였다. 삼국 항쟁은 579~601년 소강기에 진입하나, 602~603년부터 격화되었다. 7세기 전반 신라는 백제·고구려의 공격으로 최대 판도를 누리는 국가적 위기를 맞았고, ‘공훈의 역상속’을 인정하는 등 생존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sup>1)</sup>

신라는 648년 나당동맹을 맺어<sup>2)</sup> 660~668년 백제·고구려를 평정하고, 676년 나당전쟁에서 이겨 삼국을 통일하였다. 삼국통일은 통사적·단대사적 의의가 크나, 양국 부흥군 진압과 영토·백성 흡수, 나당전쟁, 나당 관계 재설정 등 과제와 외세 이용, 고구려 영토·백성의 불완전한 흡수 등 한계가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 관련 주요 논의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유관 논의는 삼국통일을 긍정하는 삼국통일론, 삼국통일을 부정하는 백제통합론·9세기 삼한일통의식 성립설(이하 ‘9세기 설’) 등이 대표적이다. 신라인의 삼국통일 인식은 『삼국사기』·『삼국유사』의 신라사 시대구분에 반영되었다.<sup>3)</sup> 전근대 한국사학은 정통론적 인식에서 대개 신라의 삼국통일을 긍정하였다. 근대 이후 사학은 정통론적 인식을 파기하나, 대개 긍정적 인식을 계승해 통설로 수용하였다.<sup>4)</sup>

백제통합론은 1988년경 시대적 과제의 궁극적 귀결점을 민족통일로 보고 삼국통일 관련 사실의 실증·해석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려 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동사강목』·『발해고』·『대동지지』는 신라·발해 병존을 주목해 삼국통일회의론을, 단재는 민족사적 과제를 인식해 삼국통일부정론을 제기하였다. ②나당동맹은 김춘추의 복수, 신 귀족 세력의 당파적 이해, 고구려 원정의 전략적 파트너를 찾던 당의 이해가 부합한 결과이다. ③백제통합전쟁은 중대 왕실이 왕권 강화를 통한 체제안정을 위해 선택한 대외전쟁이다. ④백제통합전쟁은 당이 주도하였고, 신라는 대동강 이남 백제 고지 획득을 목표로 하였다. 신라는 676년 한강 이남 군현 정비에 주력하고, 임진강 이북·대동강 이남은 735년 당을 도와 발해를 견제한 대가로 얻었다. ⑤신라 중·하대 금석문과 『삼국사기』에 보이는 일통삼한의식은 백제통합전쟁 후 창안된 경주 중심 골품 귀족의 허위의식이다. ⑥백제통합전쟁의 의의는 국내 세력의 당파적 이익 추구하고 외국의 자국 이익 추구가 빛은 반역사성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sup>5)</sup>

백제통합론에 대한 주요 비판이 제기되었다. 7세기 후반 일통삼한의식, 신라의 한반도 상당 부분 통합을 주목해 ‘통일신라’란 용어의 타당성이 검토되었다.<sup>6)</sup> 백제통합론의 과제로

1) 정덕기, 2022, 29~48쪽 ; 2023(a), 152·184~190쪽.

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眞德王 2년(648) ; 『자치통감』 권199, 당기15, 太宗 貞觀 22년(648) 閏 12월 癸未, 6265쪽.

3)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敬順王 9년(935) 12월 論曰 ; 『삼국유사』 권1, 왕력1.

4) 노태돈, 2009, 9~24쪽. 이 글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긍정하는 신라 통일론과 이를 부정하는 남북국시대론·후기 신라론·중국고구려사론 등을 아울러 검토하였다.

5) 김영하, 2007, 143~144·238~267쪽.

①단재 사관의 학술성 재검토, ②사실·실증 위주 역사해석 중시, ③발해사의 실상, 한국사 귀속 근거 구체화, ④생소한 용어·개념의 정확성 제고, ⑤고대·중세 구분 기준 명료화 등이 제시되었다.<sup>7)</sup> 또 삼국통일부정론의 문제와 삼국통일전쟁사를 종합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①신라는 고구려 유산을 상당히 계승하였고, 나당동맹은 평양 이남 백제 토지”, 즉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와 백제 토지의 신라 귀속을 약정하며 체결되었다. 따라서 신라의 전쟁 목적은 백제병합에 한정되지 않는다. ②삼국은 동질성을 지닌 세계이므로, ‘통일’의 개념은 성립한다. ③삼국통일전쟁의 의의는 최초의 동족 의식인 삼한일통의식의 발생, 고도로 정비된 중앙집권국가 성립, 중세 국가 대외정책의 틀 마련 등에 있다.<sup>8)</sup>

한편 이 논쟁 중 백제통합론이 지적한 삼국통일론의 연원을 참고해 통일신라는 식민·근대사학의 발명·상상이란 견해와<sup>9)</sup> 신라통일론은 전근대 유가사학 담론의 재편·전위란 견해가 대립하였다.<sup>10)</sup>

백제통합론의 반론이 있었다. 7세기 후반 전쟁은 신라·당은 백제통합·고구려점령을 목표로 하였다. 676년 신라는 임진강 이남을 차지하고 임진강 이북~대동강 이남 획득을 위한 북진이 없었다. 백제통합전쟁은 신라가 중세적 중앙집권체제로 이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sup>11)</sup> 일통삼한의식의 내용은 나당외교 중 여·제 평정(668)→고구려 제외 일통삼한(673)→고구려 포함 일통삼한(692)으로 변화하였다. 삼국통일론은 식민사관의 삼국통일론이 만천사관과 해방 공간의 변용을 거쳐 정착하였다. ‘통일신라’는 영토한계로 인한 편의적 명칭이며, 백제통합론에 따르면 거론할 필요가 없다.<sup>12)</sup> 이후 백제통합론자는 자설 재정리,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제출하였다.<sup>13)</sup>

삼국통일론의 반론이 있었다. “평양 이남 백제 토지”는 전후 고구려 영토 분할선, 신라·당의 작전 구역 약정이다. 676년 이후 신라는 방어망 확대에 따른 위험성 축소를 위해 임진강 이북~대동강 이남의 영역화를 미뤘다. 680년대 초·중반 일통삼한의식이 형성되나, 그 변화상은 확인하기 어렵다. 삼국통일론은 식민사학처럼 지리결정론에 기초하지 않고, 지리결정론에 기초해 발해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안 된다.<sup>14)</sup> 또 백제통합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진행되었다.<sup>15)</sup>

백제통합론은 ‘신라가 삼한일통을 목적으로 전쟁을 수행해 삼국을 통일하였다’는 명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삼국통일전쟁 과정에서 당·신라의 주도성·피동성을 강조하였다. 삼국통

6) 李昊榮, 1999.

7) 이영호, 2008.

8) 노태돈, 2009, 24~42·297~304쪽.

9) 윤선태, 2007.

10) 김홍규, 2007.

11) 김영하, 2009.

12) 김영하, 2012, 175~207·208~248쪽.

13) 김영하, 2014 ; 2016 ; 2019(b).

14) 노태돈, 2011.

15) 김수태, 2013.

일론·백제통합론 논쟁은 평행선을 이루며 대립이 격화되나, 삼국통일전쟁의 국제전적 성격을 드러내 삼국통일의 의의를 풍부히 불 단서를 마련하였다. 논쟁 과정에서 기존 명제는 ‘신라가 삼국통일전쟁을 수행하며 삼한일통의식을 수립하였다’로 전환되었다. 즉 삼국통일전쟁·삼한일통의식의 관계는 ‘사상·의식이 행위·경험을 발현한 사례’에서 ‘행위·경험이 사상·의식을 구축한 사례’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연구사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7세기 후반 한국사의 격변을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학계에 주문하였으므로, 이 논쟁은 건전한 인문학적 논쟁이었다.

한편 백제통합론을 분석·비판하며 신라는 백제만 통합하였고, 9세기 삼한일통의식이 성립했다는 설(‘9세기 설’)이 제기되었다. 이 설은 「청주운천동사적비」를 나말여초~10세기 초 고려 광종대 자료로 보아 삼한일통의식의 성립 시기를 [표 1]처럼 설명하였다.

[표 1] ‘9세기 삼한일통의식 성립설’의 삼한일통의식 성립 시기와 약칭 변화

No.	게재 연월	약칭	삼한일통의식의 성립 시기
①	2013.06	·	나말여초
②	2014.07	·	9세기 중반
③	2016.12	9세기 설	9세기 말
④	2019.02, 2023.05	9세기 설	9세기(단 「청주운천동사적비」의 건립 시기는 나말여초)
⑤	2019.06	10세기 설	10세기 고려
⑥	2023.12	10세기 설	고려 초기 광종대

※출전 :

①윤경진, 2013, 121·128~135쪽. ②윤경진, 2014, 180쪽. ③윤경진, 2016(a), 62쪽. ④윤경진, 2019(a) : 정요근 역음, 기경량 外 지음, 2023, 『신라는 정말 삼국을 통일했을까-‘삼국통일’을 둘러싼 해석과 논쟁』, 역사비평사, 18쪽. ⑤윤경진, 2019(b), 112쪽. ⑥윤경진, 2023(e), 102쪽.

※법례 : ①약칭 : 설을 주장한 논자 스스로의 약칭. ②굵게 : 동일 연도에 게재했지만, 내용 변화가 있는 경우.

이 설은 삼한일통의식을 하대인 흥덕왕~경문왕대(826~875) 정치 변동에 기인한 정치·체제 이념 변화의 산물로 보았다.<sup>16)</sup> 신라의 백제통합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근거는 2가지이다. ① 나당동맹 체결 당시 신라는 백제 고토 인식을 고려해 ‘평양 이남=백제 토지’ 귀속을 주장하였다. ②백제·고구려 멸망 후 신라·당은 백제·고구려 고지를 가졌다.<sup>17)</sup> 이 설은 현재진행 중인 일설이고, <표 1>처럼 때때로 논지 변화가 있다. 따라서 논자의 종합정리를 기다려 이해해야 한다.

삼국통일부정론 비판은 상당하다. 신라의 천하관 변화와 삼국통일의 관계 및 신라·고려 삼국통일론의 차이,<sup>18)</sup> 태종 시호 논변 자료의 혼란 원인과 무주 교체, 나당전쟁 중 임진강 이북 진출<sup>19)</sup> 등에 대한 논의가 제출되었다. 「청주운천동사적비」의 건립 연대와 중국·신라 자료

16) 윤경진, 2015(a) ; 2015(b) ; 2015(c).

17) 윤경진, 2016(c).

18) 김수태, 2014 ; 2015 ; 2017.

19) 박남수, 2016.

속 삼한·구한의 용례 검토,<sup>20)</sup> 『일본서기』의 삼한 용례와 신라의 삼한일통의식 형성 시기 검토,<sup>21)</sup> 삼국통일부정론에 대한 종합반론이 나왔다.<sup>22)</sup> 또 9세기 설의 삼국통일론 반론,<sup>23)</sup> 삼국통일부정론 간 반론이 있었다.<sup>24)</sup> 이후 「답설인귀서」의 사료적 가치, ‘삼국통일전쟁’이란 용어 등이 검토되었다.<sup>25)</sup> 최근 삼국통일부정론의 폐해, “평양 이남 백제 토지” 약정의 해석사를 살핀 견해가 나왔다. 659년 이 약정은 이미 효력이 없지만 「설인귀서」의 대응 수단으로 호출되며, 735년 대동강 이남을 신라 토지로 승인한 근거로 작용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6)</sup>

선행연구의 주요 초점인 “평양 이남 백제 토지” 약정, 삼한일통의식 등은 백제·고구려 멸망 후 자료에 보이는 표현이다. 연구를 진전시키려면 백제·고구려 멸망전의 연속성을 검토해야 한다. 신라는 백제 멸망전을 개전하며 신라·당의 약정을 거론하지 않았고, 고구려 멸망전을 마치고 양국 평정 완료를 공표하였다. 신라의 양국 멸망에 대한 전쟁 인식·전후처리를 통해 삼국통일전쟁의 연속성을 검토하면, 신라의 삼국통일 인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신라가 643년에 인식한 삼국통일전쟁의 연속성이 660·668~669년에 진행된 양국 멸망 전후처리에 미친 영향, 양국 멸망 전후처리와 삼국통일인식의 발생 과정을 논의하겠다. 2장에서는 602~659년 신라-백제·고구려 전쟁의 전황과 신라의 청병 외교를 분석해 643년 신라의 전쟁 목적이 삼국정립에서 양국 멸망으로 전환되었음을 논의하겠다. 3장에서는 양국 멸망 전후처리를 비교·분석하고, 668년 헌부례 시행, 669년 백제·고구려 평정 교서(이하 ‘양국 평정 교서’) 반포의 함의를 분석하겠다. 이 글이 유관 분야 연구의 기초 검토로 쓰이길 기대한다.

## Ⅱ. 7세기 전반 삼국정립의 폐기와 전쟁 목적의 변화

중고기 전반 신라는 삼국정립을 목적으로 고구려·백제와 전쟁을 수행하였다. 중고기 후반 신라는 지속된 수세를 타개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으므로, 신라의 전쟁 목적은 삼국정립에서 양국 멸망으로 전환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진흥왕(540~576)은 신라사에서 영역을 가장 많이 넓혔고, 삼국정립을 목적으로 고구려·백제를 공격하였다. 진흥왕은 551년 9월 고구려 멸망을 위한 백제의 추가 복진 제안을 거부하고, 553년 2월 신주를 두며 나제동맹을 파기하였다. 또 진흥왕은 554년 7월 관산성에서 성왕,

20) 전진국, 2016(a) ; 2016(b) ; 전진국, 2019 ; 하일식, 2023.

21) 노태돈, 2016.

22) 기경량, 2019 ; 전덕재, 2019 ; 정요근 엮음, 기경량 외 지음, 2023, 68~92·40~65쪽.

23) 윤경진, 2019(a) ; 2019(c) ; 정요근 엮음, 기경량 외 지음, 2023, 18~38·94~128쪽.

24) 김영하, 2018 ; 2019(a) ; 윤경진, 2019(d).

25) 김진환, 2014 ; 이재환, 2019 ; 정요근 엮음, 기경량 외 지음, 2023, 160~181쪽.

26) 윤진석, 2020 ; 2022, 251~262쪽.

좌평 4인, 백제 전군에 가까운 대병을 참살하였다.<sup>27)</sup>

551~554년 신라의 고구려 멸망 가능성은 낮지만, 백제 멸망 가능성은 높다. 백제는 관산성 전투의 패전 책임을 둘러싼 정국 혼란이 계속되며,<sup>28)</sup> 전력 대부분을 잃기 때문이다. 관산성 전투 후 백제의 첫 대규모 신라 공격은 아막성 전투(602년 8월)에서 가능하였다. 554년 진흥왕은 21·29세의 장년이며, 친정 4년째였다.<sup>29)</sup> 젊은 나이와 친정 초 치적으로 보아, 진흥왕은 정국을 주도하였다. 진흥왕이 백제멸망을 도모했다면, 백제에 대한 대규모 추가 공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진흥왕은 관산성 전투 후 전쟁을 통한 영역확장을 멈추었다. 관산성 전투 후 진흥왕의 군사 활동은 562년 7월 백제의 노략질에 대한 대응, 562년 9월 가야의 반란을 진압한 사건 뿐이다.<sup>30)</sup> 555년 이후 진흥왕은 지방통치체제 정비(555~565년, 571년), 복제·진 외교(564~572)에 주력하였다.

555년 이후 진흥왕의 행보는 신라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551~553년 이전 신라는 단기간에 16군 이상의 영역을 확보한 경험이 없었다. 새 영역은 고구려·백제와의 격전지이자 새 접경이므로, 새 영역의 안정적인 경영과 영역화는 시급한 과제였다.

삼국정립은 삼국의 공존을 인정하고, 신라의 삼국 항쟁 주도권을 확보해 신라 우위의 삼국 관계 정립을 목표로 하는 사고(思考)이자, 진흥왕이 전쟁을 수행한 목적이었다. 진흥왕은 신라에 비해 고구려·백제를 대등 혹은 하위 국가로 인식하였다. 『삼국유사』, 기이에서 진흥왕은 고구려 보전을 위해 성왕과 대립하며, 고구려인이 감복해 우호를 맺어야 할 정도의 큰 덕을 갖춘 왕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sup>31)</sup> 564년부터 활성화된 진흥왕의 대남북조 외교는 삼국 중 신흥강국으로 성장한 신라의 위상을 동아시아에서 인정받고, 유사시 대중 외교를 통해 551~554년의 삼국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삼국정립은 중고기 후반의 신라에 계승되었다. 중고 왕실은 진흥왕 직계로 이어지므로, 삼국정립을 비판할 필요가 없었다. 또 삼국 항쟁 중 소강기는 진평왕 전기(579~601)까지 지속되므로, 554년 형성된 삼국 판도는 601년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신라가 삼국정립을 양국 멸망으로 전환한 시기는 언제일까? 신라는 660년 나당연합군을 활용해 백제멸망전을 시작하므로, 이 문제의 해답은 602~659년의 전황에서 찾아야 한다. 이 기간 신라-백제·고구려 전쟁의 전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7) 정덕기, 2022, 14~18·31·41~45쪽.

28) 김병남, 2004, 69~70쪽.

29)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眞興王 卽位條(540) 및 眞興王 12년(551) 春 正月 ; 『삼국유사』 권1, 기이2, 眞興王. 진흥왕은 7세(본기)나 15세(기이)에 즉위해 태후가 섭정하였다. 551년 개국(開國)으로 개원하며 친정하였다(李丙燾, 1976, 669쪽).

30)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眞興王 23년(562) 秋 7·9월.

31) 『삼국유사』 권1, 기이2, 眞興王.

[표 2] 진평왕 후기~태종무열왕 6년(602~659) 신라의 對百濟戰 일람(㉠)·對高句麗戰 일람(㉡), 신라-백제·고구려 전쟁 종합 현황(㉢), 신라의 백제방어전 현황과 전장(㉣)

진평왕 후기~태종무열왕 6년(602~659) 신라의 對百濟戰 일람(㉠)						
연월	No.	교전 지역	지휘	병종	규모	전과 및 비고
602 진평 24 建福 19 무왕 3 秋 8월	①	阿莫城 일대 (1차)	장군 (4)파진찬 3인 乾品·武梨屈·伊利伐	壯士 (精騎)	數千	ᄒ방어 성공 신라 방어체계 강화 귀산 : 추증 '11)나마' 추항 : 추증 '12)대사'
			장군 (9)급찬 2인 武殷·比梨耶 소감 2인 貴山(무은 子)·籌項 무왕 좌평 解讎			
605 진평 27 建福 22 무왕 6 秋 8월	②	백제 東鄙	.	兵	.	ᄒ공격 실패
			.	.	.	ᄒ방어 성공
611 진평 33 建福 28 무왕 12 冬 10월	③	椴岑城 (1차)	현령 讚德 諸將	士卒 兵	3州 兵	ᄒ방어 실패 성 함락(城沒), 3州(上·下·新)兵 지원 100여 일간 전투 찬덕 전사
			.	兵	大	ᄒ공격 성공 (滅其城)
616 진평 38 建福 33 무왕 17 冬 10월	④	母山城 (阿莫城) (2차)	.	.	.	ᄒ방어 성공 (변화 없음)
			달솔 陌奇	兵	8,000	ᄒ공격 실패 (변화 없음)
618 진평 40 建福 35 무왕 19	⑤	椴岑城 (2차)	북한산주 軍主 邊品 金山幢主 (10)대나마 奚論	師	.	ᄒ공격 성공 가장성 회복(取之, 復之) 해론 전사
			.	兵	.	ᄒ방어 실패
623 진평 45 建福 40 무왕 24 冬 10월(혹 秋)	⑥	勒努縣	.	.	.	ᄒ방어 성공 (변화 없음)
			.	兵	.	ᄒ공격 실패 (변화 없음)
비고	진평왕 본기는 겨울 10월의 일로, 무왕 본기는 가을, 즉 7~9월의 일로 기록.					
624 진평 46 建福 41 무왕 25 冬 10월	⑦	速舍城 櫻岑城 岐岑城 烽岑城 旗縣城 穴柵城	訥催 5軍의 將	兵 (士卒) 軍	5軍	ᄒ방어 실패 2州(上·下)軍+3幢(貴·法·誓)軍 등 5軍 지원 3성(속함·기잠·혈책) 등 함락(沒·滅, 降), 3성(앵잠·봉잠·기현) 등은 백제 不克 눌취 전사 : 추증 '9)급찬'
			.	兵	.	ᄒ공격 성공 6성 함락(取之)
626 진평 48 建福 43 무왕 27 秋 8월	⑧	王在城 (主在城)	성주 東所	.	.	ᄒ방어 실패 (拒戰死之)
			.	兵	.	ᄒ공격 성공 (執城主 東所, 殺之)
627 진평 49	⑨	신라 西鄙 2城	.	.	.	ᄒ방어 실패 2성 함락, 남녀 300餘口 뺏김.

建福 44 무왕 28 秋 7월			장군 沙乞	.	.	<p>☞공격 성공</p> <p>2성 함락, 남녀 300餘口 획득.</p> <p>[7월]신라를 공격하고자 크게 병사를 일으켜(大擧兵) 웅진에 주둔(出屯)하나 신라·당 관계로 인해 곧 중지.</p>
628 진평 50 建福 45 무왕 29 春 2월	⑩	楸峯城 (楸峯城) (3차)	.	師	.	<p>☞방어 성공 (出師擊破)</p>
			.	兵	.	<p>☞공격 실패 (不克而還)</p>
632 선덕 1 建福 49 무왕 33 秋 7월	⑪	미상	.	.	.	<p>☞방어 성공 (변화 없음)</p>
			.	兵	.	<p>☞공격 실패 (不利)</p>
633 선덕 2 建福 50 무왕 34 8월	⑫	西邊 (西谷城)	.	.	.	<p>☞방어 실패</p>
			將	.	.	<p>☞공격 성공</p> <p>13일 만에 서곡성 함락(拔)</p>
636 선덕 5 仁平 3 무왕 37 夏 5월	⑬	西南邊 玉門谷 (獨山城 일대)	장군 2인 關川·弼香	兵	.	<p>☞방어 성공 (掩擊盡殺, 掩至塞擊)</p>
			장군 于召	甲士	500	<p>☞공격 실패 (于召登大石上, 彎弓拒戰, 矢盡爲所擒)</p>
642 선덕 11 仁平 9 의자 2 秋 7월	⑭	國西 獼猴城 등 40여 성	.	.	.	<p>☞방어 실패</p>
			의자왕	兵	.	<p>☞공격 성공 (攻取, 下)</p>
642 선덕 11 仁平 9 의자 2 8월	⑮	巖項城	.	.	.	<p>☞방어 성공</p> <p>당에 구원 요청(遣使請救於唐)</p>
			.	兵	.	<p>☞공격 실패</p> <p>군사를 일으켜 공격하나(發兵攻之), 병사를 파함(罷兵)</p>
비고	이 기사는 642년이 아닌 643년의 사건이며, 당항성에 대한 공격보다는 한주 남부 공격으로 이해된다(정덕기, 2023(b), 240~243쪽).					
642 선덕 11 仁平 9 의자 2 8월 是月	⑯	大耶城	도독(혹 성주) (2)아찬 品釋 佐 (6)아찬 西川(혹 (8)사찬 祗多那) 佐 (13)사지 2인 竹竹·龍石 幕客 (13)사지 黔日 諸將	士卒	.	<p>☞방어 실패</p> <p>대야성 함락(拔, 陷, 敗)</p> <p>김품석 : 처자와 행복하나 실패(혹 처자를 죽이고 자진)</p> <p>서천(혹 지삼나) : 전사</p> <p>죽죽 : 추증 '9)급찬'</p> <p>웅석 : 추증 '10)대나마'</p> <p>검일 : 660.8.2 사지를 찢어 죽임</p>
			장군 允忠	兵	10,000	<p>☞공격 성공</p> <p>함락 후 병사를 남겨 대야성 지킴(留兵守其城), 품석과 처자의 수급을 왕도로 보냄(品釋與妻子, 出降, 允忠盡殺之, 斬其首, 傳之王都), 남녀 1,000여인 획득 후 백제 서쪽 주현으로 사민(生獲男女一千餘人, 分居國西州縣)</p> <p>윤충 : 말 20필·곡식 1,000석 받음(王賞允忠功, 馬二十匹·穀一千石)</p>

644 선덕 13 仁平 11 의자 4 秋 9월	⑰	加兮城 省熱城 同火城 등 7성	대장군 (13)소판 김유신	.	.	☐공격 성공 (大克, 開加兮之津, 取)
			.	.	.	☐방어 실패
645 선덕 14 仁平 12 의자 5 春 正月	⑱	邊, 賈利浦城	上州 장군·대장군 (13) 소판 김유신	兵	.	☐방어 성공 참수 2,000급
			.	軍	大軍	☐공격 실패
645 선덕 14 仁平 12 의자 5 3월	⑲	國界	대장군 (13)소판 김유신	軍·兵	.	☐방어 성공 김유신 포상 : 加爵賞
			.	兵	大兵	☐공격 실패 (出屯于其國界, 將大舉兵侵我, 不敢迫乃退)
645 선덕 14 仁平 12 의자 5 夏 5월	⑳	國西 7城	.	.	.	☐방어 실패 (百濟乘虛, 襲取國西七城) 당의 고구려 공격 원조를 위해 兵 30,000 징발, 이 틈에 백제가 신라를 공격, 이후 김유신이 수복을 기도하나(遣將 軍 庾信 來侵) 변화 없음
			.	.	.	☐공격 성공 (襲取)
634~647.07 선덕 3~16 仁平 연간 무왕 35~ 의자 7	㉑	白城郡 蛇 山 邊邑	백성군 사산인 沈那	士卒	.	☐방어 성공 삼나 : 당시 新羅飛將으로 불림
			.	兵 (精兵)	.	☐공격 실패
647 진덕 元年 太和 元年 의자 7 冬 10월	㉒	茂山城 甘物城 桐岑城 등 3성	대장군 (13)소판 김유신 조녕자 舉眞(비녕자 子) 합절(비녕자 家奴)	士卒 軍士 (步騎)	10,000	☐방어 성공 (決死而戰, 大破)
			장군 義直	兵 (步騎) (甚銳)	3,000	☐공격 실패 참수 3,000여급, 대패 (大敗, 義直 匹馬而還)
648 진덕 2 太和 2 의자 8 春 3월	㉓	西邊(鄙) 腰車城 등 10여 성	.	.	.	☐방어 실패 이후 押督州 도독 김유신에게 회복 모의
			장군 義直	.	.	☐공격 성공 (襲取, 陷)
648 진덕 2 太和 2 의자 8 春 3월	㉔	大梁城 外 玉門谷	입랑주 군주 김유신	兵 士卒	.	☐공격 성공 요거성 등 10여 성 탈환 참획 1,000급 포로 비장 8인을 품석 부처의 유골과 교환 사졸 : 차등 있게 포상
			장군 義直 장군(裨將) 8인	兵	.	☐방어 실패 (大敗, 殺之幾盡)
648 진덕 2 太和 2 의자 8 夏 4월	㉕	백제 嶽城 등 12성 進禮城 등 9성	입랑주 군주 김유신	.	.	☐공격 성공 약성 전투 : 참수 20,000여급, 생획 9,000인 진례성 전투 : 참수 9,000여급, 포로 600인 김유신 : 上州 행군대총관, (2)이찬으로 승진 사졸 : 차등 있게 포상
			.	.	.	☐방어 실패

649 진덕 3 太和 3 의자 9 秋 8월	㉕	石吐城 등 7성 道薩城 下	장군 3인 김유신·죽지·천존	衆 將士	·	㉕방어 성공 (大克) 殺虜(생획) : 달솔 正仲 등 사졸 100인 포로 중 좌평 은상, 달솔 自堅 등 10인 참수 斬軍卒 : 8,980급 획득 전마 : 10,000필 획득 갑옷 : 1,800벌 획득 병장기 : 不可勝數 포상 : 大王迎門, 勞慰優厚 650.06 당에 승전 알림
			장군 좌평 殷相 좌평 正福 달솔 正仲·自堅 등 10여인	衆·兵 (精兵) 壯士	7,000	㉕공격 실패 초전 : 不利敗散卒, 재전 : 大敗 좌평 은상·달솔 自堅 : 참수 좌평 정복 석방 달솔 정중 : 미상
655 태종무열 2 의자 15 정월~8월	㉗	北境 33성	·	·	·	㉕방어 실패 당에 구원 요청(遣使入唐求援)
			고구려·백제·말갈	兵	·	·
비고	신라·고구려 본기는 정월에 신라가 33성을 잃었다고 하고, 백제본기는 8월에 신라의 30여 성을 공파해 함락(沒)했다고 서술하므로, 2~8월의 전쟁으로 이해된다.					
655 태종무열 2 의자 15 秋 9월	㉘	백제 접경 (抵)이자 陽 山 인근 刀比川城 (助川城)	三千幢 병사 驛徒 郎幢 大監 金欽運 大監 穢破 少監 狹得 大舍 詮知 步騎幢主 實用那 김유신	軍 三千幢 郎幢	·	㉕방어 성공 (虞信入百濟, 攻刀比川城克之) 취도 : 전사 김흠운·예파 : 추증 (7)일갈찬 적득·보용나 : 추증 (10)대나마 양산기를 지어 추모
			·	·	·	·
비고	尙州 永同郡 陽山縣(현 충북 영동군 양산면)의 옛 이름은 助比川縣이므로, 도버천성·조천성은 같은 지명이다(정구 북 외 역주, 2012,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675쪽).					
659 태종무열 6 의자왕 19 夏 4월	㉙	獨山城 桐岑城 등 2성	·	·	·	㉕방어 성공 (변화 없음)
			將	·	·	·
진평왕 후기~태종무열왕 6년(602~659) 신라의 對高句麗戰 일람(㉚)						
603 진평 25 建福 20 영양 14 秋 8월	①	北漢山城	진평왕	兵	·	㉕방어 성공 (拒)
			장군 高勝	·	·	㉕공격 실패 (勝以彼衆我寡, 恐不克而退)
608 진평 30 建福 25 영양 19 春 2월	②	신라 北境	·	·	·	㉕방어 실패 (영역 변화 없음)
			將	·	·	㉕공격 성공 虜獲 : 8,000인
608 진평 30 建福 25 영양 19 夏 4월	③	牛鳴山城	·	·	·	㉕방어 실패
			·	·	·	㉕공격 성공 (拔)
612~614	④	고구려 땅	·	·	·	㉕공격 성공

진명 34~36 建福 29~31 영양 23~25	500리					固방어 실패		
비고	644년 연개소문과 상리현장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崔豪元, 2012, 25~28쪽; 장창은, 2014, 『고구려 남방 진출사』, 景仁文化社, 308~312쪽; 정덕기, 2021, 37~38쪽).							
629 진명 51 建福 46 영류 12 秋 8월	⑤ 娘臂城	(2)이찬 任未里 대장군 2인 (4)파진찬 김용춘 (3)소판 김서현 - 직위 미상 (4)파진찬 白龍 (3)소판 大因 부정묘 김유신(김서현 자)	兵·軍			固공격 성공 낭비성 함락 斬殺 : 5,000여급 生擒 : 1,000인 김유신의 공적이 가장 큼 (고구려 본기는 주장(主將)을 김유신으로 기록)		
						固방어 실패 (城中兜懼無敢抗, 皆出降)		
비고	김유신열전은 김유신의 관함을 중당 당주(中幢 幢主)라 하나, 중당은 문무왕 11년(671)에 창설되었다(『三國史記』 권40, 雜志9, 職官 下 武官, 仲幢, “文武王 十一年, 始置.”). 본기의 김유신 관함을 따른다.							
638 선덕 7 仁平 5 영류 21 冬 10~11월	⑥ 신라 北邊 七重城	대장군 關川				固방어 성공 (戰於七重城外, 克之, 殺獲甚衆)		
			兵			固공격 실패 (戰於七重城外, 我兵敗衄)		
642 선덕 11 仁平 9 보장왕 元年	⑦ 한강 이북 고구려 南境	대장군 김유신	死士	10,000		固김춘추 구출 성공(교전 없음) 김유신 : 입량주군주로 승진		
						固김춘추 억류 해제		
644 선덕 13 仁平 11 보장 3 春 正月	⑧ 지명 미상 2성(兩城)	연개소문				固방어 실패  固공격 성공 (破), 상리현장의 도착으로 진격 멈춤, 고구려 故地		
655 태종무열 2 보장 14 春 正月~8월	⑨ 北境 33성	고구려·백제·말갈	兵			固방어 실패 당에 구원 요청(遣使入唐求援)  固공격 성공 (取)		
비고	이 표의 'A~D'과 같음							
신라-백제-고구려 전쟁 종합 현황(C)								
구분	연월	적국	성격	규모		승패	손익	영역 주 전쟁 및 비고
				신라	적국			
진평왕 후기 1기 (602 ~622)	602.08	백	방어전	수천	40,000 ↑	승	+4성	아막성 방어체제 강화를 위해 소타·웅잠·외석·천산 등 4성 신축
	603.08	고	방어전	미상	미상	승	.	.
	605.08	백	공격전	미상	미상	패	.	.
	608.02	고	방어전	미상	미상	패	.	.
	608.04	고	방어전	미상	미상	패	-1성	우명산성
	611.10	백	방어전	3州兵	大兵	패	-1성	가잠성
	612~614	고	공격전	미상	미상	승	+500리	2城 이상 영역
	616.10	백	방어전	미상	8,000	미상	.	.
	618	백	공격전	2軍	미상	승	+1성	가잠성
진평왕 후기	623.10	백	방어전	미상	미상	승	.	.
	624.10	백	방어전	5軍	미상	패	-6성	속함·기잠·혈책·앵잠·봉잠·기잠 등 6성

II기 (623 ~632)	626.08	백	방어전	미상	미상	패	-1성	왕재성(혹 주재성)						
	627.07	백	방어전	미상	미상	패	-2성	西鄙 2성 함락						
	628.02	백	방어전	미상	미상	승	.	.						
	629.08	고	공격전	미상	6000↑	승	+1성	낭비성						
선덕왕 전기 (632 ~641)	632.07	백	방어전	미상	미상	승	.	.						
	633.08	백	방어전	미상	미상	패	-1성	西邊 서곡성						
	636.05	백	방어전	미상	甲士 500	승	.	西南邊 玉門谷(獨山城 일대)						
	638.10~11	고	방어전	미상	미상	승	.	칠중성						
선덕왕 후기 (642 ~647)	642.07	백	방어전	미상	.	패	-40여 성	國西 미후성 등 40여 성						
	642.08 [643]	백	방어전	미상	미상	승	.	당항성 등 한주 남부						
	642.08	백	방어전	미상	.	패	-1성	대야성						
	642	고	공격전	死士 10,000	.	승	.	한강 이북 고구려 南境 (교전 없이 김춘추 구출)						
	644.01	고	방어전	미상	미상	패	-2성	상리현장 도착으로 진격 멈춤						
	644.09	백	공격전	미상	미상	승	+7성	加今·省熱·同火 등 7성						
	645.01	백	방어전	미상	2000↑ 大軍	승	.	邊, 賈利浦城						
	645.03	백	방어전	미상	大兵	승	.	國界						
	645.05	백	방어전	미상	미상	패	-7성	國西 7성						
	634~647.07	백	방어전	미상	미상	승	.	백성군 사산현 변읍						
진덕왕 (647 ~654)	647.10	백	방어전	10,000	3,000	승	.	茂山·甘物·桐峯 등 3성						
	648.03	백	방어전	미상	미상	패	-10여 성	西邊(鄙) 腰車城 등 10여 성						
	648.03	백	공격전	미상	미상	승	10여 성	西邊(鄙) 腰車城 등 10여 성						
	648.04	백	공격전	미상	미상	승	21성	악성 등 12성, 진례성 등 9성						
	649.08	백	방어전	미상	미상	승	.	石吐城 등 7성·도살성 인근						
태종 무열왕 (654 ~659)	655.01~08	고 백 말갈	방어전	미상	미상	패	-33성	당에 구원 요청						
	655.09	백	방어전	軍 三千幢 郎幢	미상	승	.	백제 접경 지역인 陽山 인근 刀比川城=助川城						
	659.04	백	방어전	미상	미상	승	.	獨山·桐峯 등 2성						
No.	시기	전황						신라의 공격전			신라의 방어전			
		총수	빈도	승리	패배	미상	손익	백	고	종합	백	고	종합	
		① 진평왕 후기 I기(602~622, 21년간)	9	2.3	4	4	1	+3*	2	1	3	3	3	6
		② 진평왕 후기 II기(623~632, 9년간)	6	1.5	3	3	0	-8	0	1	1	5	0	5
		③ 선덕왕 전기(632~641, 10년간)	4	2.5	3	1	0	-1	0	0	0	3	1	4
		④ 선덕왕 후기(642~647, 5년간)	10	0.5	6	4	0	-43	1	1	2	7	1	8
		⑤ 진덕왕(647~654, 7년간)	5	1.2	4	1	0	+21	2	0	2	3	0	3
		⑥ 태종무열왕 元年~6년(654~659, 6년간)	3	2.0	2	1	0	-33	0	0	0	2	1	3
		⑦ 종합1(①~⑥, 58년간)	37	1.6	22	14	1	-61	5	3	8	23	6	29
		⑧ 종합2(①~③, 40년간)	19	2.1	10	8	1	-6	2	2	4	11	4	15
⑨ 종합3(④~⑥, 18년간)	18	1.0	12	6	0	-55	3	1	4	12	2	14		
신라의 백제방어전 전황과 전장(㉠)														
No.	시기	전과	단수 전장	복수 전장				전장 미상	종합					
			1성	2~3성	4~6성	7~10성	40성							
①	진평왕 후기~선덕왕 전기	승전	4	.	.	.	.	1	5					
		패전	3	1	1	.	.	.	5					
		미상	1	.	.	.	.	.	1					
②	선덕왕 후기~태종무열왕 6년	승전	5	1	.	1	.	1	8					
		패전	1	.	.	2	1	.	4					

※출전 : 비교의 출전은 표 안에 명시

『삼국사기』 권4·5, 신라본기4·5, 眞平王·善德王·眞德王·太宗王.  
 『삼국사기』 권20·21, 고구려본기8·9, 嬰陽王·榮留王·寶藏王.  
 『삼국사기』 권27·28, 백제본기5·6, 武王·義慈王.  
 『삼국사기』 권41·42, 열전1·2, 金庾信 上·中.  
 『삼국사기』 권47, 열전7, 奚論【父 讓德 附】·素那【父 沈那 附】·驟徒【兄 夫果·弟 逼實 附】·訥催·金欽運·丕寧子【子 舉眞·奴 舍節 附】·竹竹.  
 『삼국사기』 권49, 열전9, 蓋蘇文.

※범례 : ①검정 바탕 흰 글씨 : 신라의 공격전 ②승·패 : 방어전은 전투 후 변화가 없으면, 방어에 성공했다고 보아 勝으로, 방어에 실패하면 敗로 표기하였다. 未詳은 변화가 없지만, 속함성 등 6성 전투를 고려해 표기하였다. ③고구려·백제·신라는 ㉠·㉡·㉢으로 축약. ④겹선 : ㉠·㉡·㉢·㉣의 구분 ⑤C의 시기에서 전왕 흥거·후왕 즉위로 인해 중복된 기간은 즉위일을 따져 6월 이전이면 후왕의 기간에, 7월 이후면 전왕의 기간에 산입하였다. ⑥C의 빈도는 '년 / 1회', 손익 단위는 성 ⑦C-①의 \* : 성의 수를 里數로 치환하기 어렵고 ㉠-㉢로 보아 고구려에서 뺀 500리에 최소 2성이 포함되므로 이를 표현하였다. ⑧C-①·② : 정덕기, 2023a), 157~160쪽. 이 견해는 대백제전 기준으로 진평왕 후기를 1·11기로 구분하였다. 대고구려전 전황을 반영하면 세부 구분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1·11기의 구분은 같다. 따라서 진평왕 후기를 1·11기로 구분하였다. ⑨C-⑥·⑦·⑧의 밑줄 : 655년 전투는 고구려·백제·말갈이 신라를 공격하므로 ㉠-㉢·㉣-㉤에 표기하고, 통계화할 때는 적국 ㉠에만 표기하였다.

신라-백제·고구려 전쟁의 전황과 재위 기간을 고려하면, 이 기간은 C-①~⑥처럼 세분된다. [표 2]에서 642년의 전황 변화는 주목된다. 진평왕 후기~선덕왕 전기(602~641, C-①~③)는 2.1년마다 전투 1회가 발생해 19전(공격전 4전, 방어전 15전)을 수행하였다. 전황은 10승·8패·1미상, 6성 손실이므로, 이 시기 신라는 손해가 크지 않은 방어를 수행한 방어자였다.

반면 선덕왕 후기~태종무열왕 6년(642~659, C-④~⑥)은 1년마다 전투 1회가 발생해 18전(공격전 4전, 방어전 14전)을 수행하였다. 전황은 10승·8패, 55성 손실이므로, 이 시기 신라는 손해가 큰 방어를 수행한 방어자였다. 즉 602~659년의 58년간 전개된 삼국 항쟁에서 신라는 대개 방어자로 수세에 있었고, 642년부터 전투의 빈도·규모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방어력의 한계를 맞고 있었다.

전황 변화의 주요 원인은 백제의 빈번한 대공세와 전략 변화이다. 무왕·의자왕대 백제는 신라 하주(下州) 방면을 집중 공격해 신라 내지(內地) 진출을 도모하고, 간간이 상주(上州) 방면을 공격하였다.<sup>32)</sup> 신라가 58년간 치른 방어전 29전 중 백제방어전은 23전, 602~641·642~659년에 11·12전이 있었다. 백제의 전투별 동원병력은 알기 어렵지만, 전황상 백제의 공격 규모는 확대되었다.

또 백제는 늦어도 의자왕 2년(642)에 신라 공격 전략을 전환하였다. 602~641년 백제의 공격은 단수 전장 8전, 복수 전장 2전(A-⑦·⑨), 전장 미상(A-⑪) 1전에 투사되었다. 642~659년 백제의 공격은 단수 전장 5전(A-⑮·⑯·⑰·⑳·㉑), 복수 전장 6전(2~3성 : A-㉒·㉓, 7~10성 : A-㉔·㉕·㉖), 40성 : A-⑭), 전장 미상 1전(A-⑰)에 투사되었다. 즉 백제는 602년부터 신라 왕경을 목표로 공격하고, 642년부터 복수 전장을 공격 권역으로 묶어 동시다발적으로 신라의 왕경 방어 전선 자체를 공격하였다. 백제는 7세기 초부터 신라 멸망을 목표하였고, 7세기 전반에 가시화된 성과를 얻고 있었다.

642~659년 신라의 백제방어전 전황은 12전·8승·4패, 전장별 전황은 단수 전장이 5승·1패,

32) 박종욱, 2022, 189~192쪽.

복수 전장이 2승·3패(2~3성 : 1승, 7~10성 : 1승·2패, 40성 : 1패)이다. 신라의 단수 전장 방어는 대개 성공하나, 복수 전장 방어는 대개 실패하였다. 신라는 백제의 31여 성을 탈환하기도 하나(㉠-㉡·㉢·㉣), 전략적 차원의 승리를 얻지 못했다.

602~659년 고구려는 백제보다 간헐적·소규모로 신라를 6회 공격하였다. 644년 정월 연개소문의 2성 함락, 655년 고구려·백제·말갈의 신라 북경 33성 함락(㉤-㉥·㉦) 외 신라의 고구려 방어전은 단수 전장에서 진행되었다. 신라는 612~614년에 2성을 포함한 고구려 땅 500리를, 629년에 낭비성을 확보하였다. 7세기 전반 고구려는 수·당과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고구려의 신라 공격은 거세지 않지만, 655년 고구려·백제·말갈의 공격은 신라의 수세를 크게 심화시켰다.

신라가 양국 멸망을 생각한 시점은 언제일까? 김유신열전은 611년 17세의 김유신과 난승의 일화를 기록하였다. 김유신은 고구려·백제·말갈 등 적국이 잇달아 신라를 공격해 대개 편안한 세월이 없어 화란을 없애고자 수련하였다. 난승은 김유신이 품은 삼국을 병합할 마음(并三國之心)을 장하게 여겨 김유신에게 비법을 전했다.<sup>33)</sup>

당시 신라의 관심사는 백제 대비이므로, 이것은 열전 특유의 과장이라고도 한다.<sup>34)</sup> 그러나 602~611년 신라는 백제·고구려의 침입을 번갈아 받으므로(㉠-㉡·㉢, ㉤-㉥·㉦·㉧), 단순 과장은 아니다. 또 595년생인 김유신은 삼국 항쟁 중 소강기에 유년기를 보냈고, 진흥왕대 전쟁을 겪지 않아 백제·고구려의 연이은 공격 원인을 이해하기 어려운 세대이다.

17세 김유신의 생각은 단순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된다. 신라 화란의 원인은 적국 공격이므로, 적국만 일소·병합되면 신라가 평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적국 일소·병합은 난승 등 일부 기성세대의 지지를 받았다. 김유신은 15세에 화랑으로 용화향도를 이끌고, 18세에 국선이 되므로,<sup>35)</sup> 적국 일소·병합은 화랑에게 교육·전파되었다.

611~612년의 적국 일소·병합은 신라의 정책에 반영될 정도가 아니다. 김유신은 629년 낭비성 전투에 출전해 전공을 세우나(㉨-㉩) 641년까지 활동이 없고, 642년 김춘추 구출 작전을 지휘하나 승진하지 못했다(㉪-㉫). 김유신은 644년 백제의 7성을 취해 소관이 되었다(㉬-㉭). 즉 630~641년 김유신은 정치적 위상이 높지 않았다. 641년 이전 김유신 등이 생각한 적국 일소·병합은 젊은 화랑의 단순한 생각에 불과하며, 신라의 정책에 반영될 정도가 아니었다.

삼국통일전쟁의 기점을 642년<sup>36)</sup> 혹 641년이라고도<sup>37)</sup> 하나, 신라는 643년 삼국정립을 양국 멸망으로 전환하였다. 642년 7~8월 41성(미후성 등 40여 성+대야성) 상실은 왕경 서쪽 1차 방

33)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眞平王 建福 28년 辛未(611).

34) 朱甫暉, 2007, 7쪽.

35)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眞平王 建福 28년 辛未(611) ; 『삼국유사』 권1, 기이2, 金庾信.

36) 李基白·李基東, 1982, 289~301쪽 ; 642년 이후 상황, 643년 고구려·백제의 당항성 공격에 대한 신라의 대응이 나당동맹과 고구려·백제멸망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37) 노태돈, 2009, 51~53쪽. 삼국·중국의 요인과 나당동맹의 영향을 고려하면, 삼국통일전쟁의 기점은 641년이다. 유관 선행연구 경향은 노태돈, 2009, 43~51쪽 참고.

어선 붕괴, 신라사 초유의 대패 등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신라에 심각한 전력 손실, 여유 병력 부재, 멸망 위기 등을 초래하였다. 이후 신라는 백제의 빈번한 공세로 전력 복구에 난항을 겪었다. A를 보자.

A-①. [정월] ①유신이 백제를 벌(伐)하고 돌아와 왕을 뵈기 전에 백제의 대군이 또 와서 변경[김유신열전 : 매리포성(賈利浦城)]을 노략질하였다. 왕이 명해 이를 막게 하였다[김유신열전 : 왕이 다시 유신을 상주 장군에 배수하여 백제를 막게 하였다. [김유신열전 : 유신은 명을 듣자 말을 탔다.] 끝내 집에 가지 못하고[김유신열전 : 처자를 보지 않고], 가서 백제를 공격해 깨뜨리니, 목을 벤 것이 2,000급(級)이었다.<sup>38)</sup>

A-②. [3월] 돌아와 [김유신열전 : 왕궁에서] 왕에게 복명하였다. 아직 집에 가지 못했는데, 또 백제가 다시 침입했다는[김유신열전 : 백제 병사가 나와 국계(國界)에 주둔하고, 장차 크게 병사를 일으켜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는] 급보가 들어왔다. … 유신은 또 집에 가지 못하고 ①주야로 군사를 훈련(晝夜練兵)하였다[김유신열전 : 군사를 훈련하고 병기를 수선하였다(練軍繕兵)]. … [김유신열전 : 국경에 이르러 백제인이 우리 병사의 위위를 보고, 감히 맞서지 못해 물러났다. 대왕이 이를 듣고 심히 기뻐하며 작(爵)·상을 내렸다.]<sup>39)</sup>

A는 645년 정월~3월 매리포성·국경 전투 관계 자료이자, 신라의 전력 보충을 보여주는 유일 사례이다. A-①-①은 가혜성·성열성·동화성 등 7성 전투를 말한다(A-①⑦). A에서 김유신의 행적은 ‘7성 공격·승리(644년 9월)→경주 일대에서 매리포성 전투 출전·승리(644년 정월)→경주에서 보충병 선발·훈련, 무기 수리 후 국경 전투 출전·승리(644년 3월)’로 요약된다.

A-②-①은 김유신이 국경 전투 전 군사를 선발·훈련하고, 무기를 수리했다고 하므로, 신라의 여유 병력이 적음을 보여준다. 이유는 3가지이다. 첫째, 국경 전투에 동원한 김유신의 병력은 ‘7성 전투 공격군 잔존 병력+신병’이므로, 규모가 작다. 642년 김춘추 구출 작전에 동원한 병력은 사사(死士) 10,000명이다. 양자의 시기적 격차는 2년이므로, 공격군 규모 차이는 크지 않다. 7성 전투는 전장 규모로 보아 병력 손실이 상당하였고, 문맥상 7성 전투에서 입은 병력 손실을 모두 보충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둘째, 김유신은 국경 전투를 위한 병력·무기 보충이 필요하였고, 왕경에서 신병을 선발·훈련하였다. 국경 전투는 왕경에 있던 김유신이 귀가를 못할 정도로 준비 시간이 적고, 대규모

38)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善德王 14년(645) 春 正月. “庾信自伐百濟還, 未見王, 百濟大軍, 復來寇邊. 王命拒之. 遂不至家, 往伐破之, 斬首二千級.” ;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上, 善德大王 14년 을사년(645) 正月. “歸未見王, 封人急報. 百濟大軍來攻我賈利浦城. 王又拜庾信爲上州將軍, 令拒之. 庾信聞命即駕, 不見妻子, 逆擊百濟軍走之, 斬首二千級.” 이하 문량 관계상 비슷한 맥락의 자료는 본기 위주의 해석문에 열전의 차이를 간략히 정리하고, 각주에 원문을 병기한다.

39)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善德王 14년(645) 春 正月. “□□□還命於王. 未得歸家, 又急報. 百濟復來侵. … 庾信, 又不歸家, 晝夜練兵. ….” ;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上, 善德大王 14년 을사년(645) 3월. “還命王宮, 未歸家. 又急告, 百濟兵出屯于其國界, 將大舉兵侵我. … 庾信又不入家, 練軍繕兵. … 及至疆場, 百濟人望我兵衛, 不敢迫乃退. 大王聞之, 甚喜, 加爵賞.”

전투가 예상되었다(將). 신라에 여유 병력이 많았다면, 김유신은 훈련된 병사로 부대를 증편하거나, 다른 장수가 군사를 맡아 출정했다고 판단된다.

셋째, 7성 전투 공격군은 선덕왕 후기에 편성한 마지막 공격군이고, 645년 5월 신라는 국서(國西) 7성을 잃었다(A-⑧). 국서 7성 전투, 국경 전투의 시차는 2개월이다. A-②-①처럼, 신라는 국서 7성 전투에 ‘기존 전투 잔존 병력+약간 훈련한 신병’을 동원했겠지만, 패전하였다. 또 644년 9월~655년 5월은 4·2·2·2개월마다 전투가 있었다. 이 시기 신라는 심각한 전력 누수, 여유 병력 부재, 어려운 전력 복구 등에 직면하였고, 전력 확충이 절실하였다.

이상의 문제는 642~643년에도 있었고, 이것은 김춘추의 대고구려 청병(642)·신라의 대당 청병(643)이 시작한 이유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신라는 삼국정립을 재검토해야 하였다. 642년부터 신라가 겪은 문제의 주요 원인은 백제의 빈번한 대공세였고, 삼국정립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타개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642년 신라는 백제를 정벌·병탄·보원(報怨) 대상으로 인식하였다.<sup>40)</sup>

643년 신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킬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642년 겨울 김춘추의 대고구려 청병이 실패하기 때문이다. 642년 10월경 신라는 고구려와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신라는 칠중성 전투 후 고구려와 교전이 없었고, 칠중성을 공격했던 영류왕은 연개소문의 정변으로 시해되기 때문이다.<sup>41)</sup> 그러나 김춘추의 대고구려 청병 실패로, 신라-고구려 관계의 개선 여지는 완전히 소멸하였다.

김춘추의 대고구려 청병 경과는 선덕왕본기·김유신열전에 수록되었다. 두 자료는 내용이 약간 다르며, 신라고기가 원전이다(一事而小異, 以皆古記所傳).<sup>42)</sup> 이를 [표 3]으로 정리하였다.

[표 3] 선덕왕본기(a)·김유신열전(b)에 기록된 642년 김춘추의 대고구려 청병 경과

No.	구분	선덕왕본기(a)	김유신열전(b)
①	선덕왕의 고구려 청병	백제 정벌, 대야성 전역 보복, 김춘추를 파견해 청병(請師)	.
②	김춘추의 사행 배경	대야성의 패배로 딸 고타소가 죽음(都督 品 釋之妻, 死焉. 是, 春秋之女也.) 김춘추가 백제명망을 다짐 김춘추의 청병사 자청, 왕의 재가	대야성의 패배로 딸 고타소가 남편 품석을 따라 죽음(春秋公 女子, 古陞炤娘, 從 夫 品釋死焉) 김춘추가 이 사건을 한으로 여김 김춘추의 청병사 자청, 왕의 재가
③	출발 직전(將行)	.	김춘추가 60일 내로 돌아오지 않으면, 김유신이 군사를 동원하기로 하고, 삼혈(歃血)하며 맹세함
④	김춘추 사행 출발 사행 중 경유지에서 현(縣) 사람 재물 공여	.	훈신(訓信) (8)시간과 사행 출발 대매현(代買縣) 사람인 두사지(豆斯支) (8)시간에게 청포(靑布) 300보(步)를 받음

40)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善德王 11년(642) 冬. “王將伐百濟, 以報大耶之役. 乃遣伊滄 金春秋於高句麗, 以請師. … [春秋]既而言曰. “嗟乎! 大丈夫豈不能吞百濟乎!” 便詣王曰. 臣願奉使高句麗, 請兵以報怨於百濟.” 王許之.” ;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善德大王 11년 壬寅(642). “[春秋]欲請高句麗兵, 以報百濟之怨, 王許之.”

41)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榮留王 25년(642) 冬 10월.

42)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善德大王 11년 壬寅(642).

⑤	김춘추의 평양성 도착	.	보장왕이 연개소문을 보내 객관에 묵게 하고, 잔치를 열며, 대우를 후하게 하여 접빈함
⑥	김춘추의 사행 의도	김춘추가 직접 청병을 요청	고구려에서 염탐으로 판단
⑦	보장왕의 요구	고구려 고지(죽령 서북) 반환	고구려 고지(마목현·죽령) 반환
⑧	김춘추의 보장왕 요구 거절	선린의 뜻이 없고 겁박만 있음을 들어 보장왕 면박	국토는 신하가 처분할 수 없음을 들어 보장왕 면박
⑨	김춘추 억류	억류	억류
⑩	김춘추 살해 의도	없음	있음. 단 처형을 미룸(欲戮未果)
⑪	김춘추의 뇌물 공여 선도해·김춘추 담화	.	김춘추가 간을 나중에 준다고 하고 거북이로부터 도망친 토끼 이야기(구토자설)를 듣고 깨달음
⑫	김춘추의 대응	사자를 통해 선덕왕에게 상황 보고	보장왕에게 거짓 맹세 문서 전달
⑬	김춘추 구출 노력	김유신이 死士 10,000인 통솔 한강 이북 고구려 남쪽 국경 진입	김유신이 날짜로 보아 상황 감지 김유신이 용사 3,000인 선발(揀得) 김유신 출정 준비
⑭	고구려의 상황 파악	김유신군 <b>행군 상황</b> 을 보고 받음	김유신군 <b>출정 준비</b> 를 보고 받음
⑮	김춘추 억류 해제와 억류 해제 사유	억류 해제 김유신의 행군 상황	억류 해제 춘추의 맹서, 김유신의 출정 예정
⑯	귀국한 김춘추가 고구려에 보내는 전언	.	김춘추의 사행 의도 전달 고구려 고지 반환 약속은 살기 위한 거짓말임을 고구려에 전달

※출전 :

(a) :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善德王 11년(642) 冬

(b) :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善德大王 11년 壬寅(642).

[표 3]처럼, (a)·(b)는 ‘사행 배경(①·②)→사행 출발~평양 도착(③~⑤)→김춘추·보장왕 회담과 결과(⑥~⑩)→김춘추의 귀국 노력(⑪·⑫)→김춘추 구출 노력과 고구려의 대응(⑬·⑭)→귀국(⑮·⑯)’을 위주로 서술되었다. (b)가 (a)보다 경과를 상술하나, (a)·(b)의 맥락은 유사하다. (a)·(b)의 맥락 차이는 ③~⑤·⑥~⑩·⑬·⑯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에 유의해 (a)·(b)의 중요 맥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는 김춘추의 비범을, (b)는 김춘추를 도운 김유신을 부각하였다. (a)에서 김춘추는 사행 의도를 보장왕에게 말하고, 보장왕의 요구를 질타·면박하였다. 보장왕은 김춘추 살해 의도가 없고, 신라-고구려 전쟁이 예상되자 특별한 조건 없이 김춘추를 풀어주었다.

(b)에서 김춘추는 김유신의 약속을 믿고 사행을 떠났다. 보장왕은 김춘추의 사행 의도를 염탐으로 판단하고, 김춘추를 살해하고자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김춘추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짓 맹세문을 올리고, 보장왕은 김춘추의 맹세문과 김유신의 출정 준비로 인해 김춘추를 풀어주었다. 귀국 시 김춘추는 사행 의도, 맹세문의 진의를 고구려에 전달하였다. 고구려는 당시 연개소문 정변 직후이므로, 김춘추·보장왕 회담의 모습은 (b)가 (a)보다 사실에 가깝다고 이해된다.

김춘추의 대고구려 청병은 실패하나, 신라는 고구려의 고토 회복 의지를 확인하였다. ⑦-⑯(a)·(b)는 보장왕의 요구로, 내용 차이가 거의 없다. 보장왕은 김춘추의 청병 수용·생환 대가로 죽령 서북(마목현·죽령)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보장왕이 요구한 지역은 590년 온달의 목표인 ‘계립현(鷄立峴)과 죽령 이서’로,<sup>43)</sup> 죽령로 위주의 영서 내륙 요충지, 국원을 포함한

다.<sup>44)</sup> 보장왕의 요구는 551년 이전 고구려 고토와 삼국 형세 회복 의지를 전제하였다.

41성 상실을 함께 고려하면, 김춘추에게 이 요구의 수용은 진흥왕 이전 신라로의 회귀, 범흥왕 가야정복의 의미 퇴색, 중고 왕실의 치적 부정을 의미하였다. 신라는 고구려를 타협 여지가 없는 적국으로 인식해야 하였다. 고구려는 당과 적대 관계가 해소되면 신라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이 요구를 통해 단순 거절보다 못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김춘추는 고구려의 내심을 파악하였다.

신라가 고구려의 의지를 안 시점은 김춘추가 귀국한 643년 정월 이후이다. 이유는 3가지이다. 첫째, 김춘추는 연개소문 정변 이후 사행을 떠났다. 신라가 연개소문의 정변을 인지한 시점은 당의 사례로 보아 642년 10월 말~11월 초로 이해된다. 당시 당은 고구려의 동향을 주시하고, 642년 11월 5일 영주 도독 장검의 보고로 연개소문의 정변을 알았다.<sup>45)</sup> 둘째, 김춘추는 왕복 사행 기간을 60일로 예정하나, 60일을 넘겨 귀국하였다(③·⑬(b)). 셋째, 김춘추 억류해제는 김유신의 군사 선발·편성 등 신라의 김춘추 구출 노력이 보장왕에게 보고된 후 이루어졌다(⑬·⑭). (a)·(b)의 맥락 차이가 있지만, 김유신은 김춘추를 구출하고자 별도 병력을 선발·편성하였다. (a)는 병종이 사사(死士)이므로 자원병 선발 과정이 전제되며, (b)는 국내 용사 선발(揀得國內勇士)을 명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643년 정월 이후 김춘추의 귀국으로 신라는 고구려의 의지, 신라-고구려 관계의 개선 여지 소멸 등을 인식하였다.

이것은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켜도 신라-고구려 간 전쟁이 남았음을 의미하였다. 신라는 생존을 위해 삼국정립을 백제·고구려 멸망으로 전환하고, 전쟁 목적 변화에 따른 실천이 필요하였다. 신라는 전력 복구 시간을 벌며, 고구려의 공격이 더하는 일을 막아야 하였다.

이것은 643년 9월 4일 신라의 대당 청병으로 나타났다. 신라는 고구려·백제의 연병(連兵)·연화(聯和), 신라의 멸망 위기를 알리며 당에 청병하였다. 유관 자료를 여제연화나 당항성 전투와 관련해 이해하기도 한다.<sup>46)</sup> 그러나 유관 자료는 신라가 양국을 한통속으로 몰았고, 당은 자국 이익을 위해 사건의 진위와 관계 없이 신라의 주장을 수용한 사실을 보여준다. 유관 자료를 [표 4]로 정리하였다.

43) 『삼국사기』 권45, 열전5, 溫達, 臨行誓曰.

44) 장창은, 2014, 291~292쪽.

45) 『자치통감』 권196, 당기12, 太宗 貞觀 16년 11월 丁巳(642.12.02), 6181쪽. 이하 이 글은 필요에 따라 대만 中央研究院 兩千年中西曆轉換(<https://sinocal.sinica.edu.tw/>)를 참고하여 중·서력을 병기한다.

46) 유관 선행연구의 경향은 김덕원, 2022, 17~23쪽 참고.

[표 4] 643년 9월 경진(庚辰)(4일, 643.10.21) 신라의 대당 청병 관련 자료

No.	구분	출전	내용
①	발단	(a)	遣使 大唐上言.
		(b)	新羅遣使 言.
		(c)	遣使 上言.
		(f)	會, 新羅遣使者, 上書(=문서)言.
		(g)	新羅遣使於唐, 言.
		(h)	新羅遣使 言.
②	643년 9월 이전 상황	(a)	高句麗·百濟, 侵凌臣國, 累遭攻襲, 數十城
		(b)	高麗·百濟, 侵凌臣國, 累遭攻襲, 數十城
		(c)	高麗·百濟, 累相攻襲, 亡失數十城
		(d)	為高麗·百濟, 所攻.
		(g)	百濟攻取, 我(=즉 신라)四十餘城
		(h)	百濟攻取, 其國(=즉 신라)四十餘城
③	643년 9월 예정 상황	(a)	兩國連兵, 期之必取, 將以今茲九月大舉, 下國社稷, 必不獲全.
		(b)	兩國連兵, 期之必取, 將以今茲九月大舉, 臣社稷, 必不獲全.
		(c)	兩國連兵, 意在滅, 臣社稷
		(f)	高麗·百濟聯和, 將見討.
		(g)	[백제기]復與高句麗連兵, 謀絕入朝之路.
		(h)	[백제기]復與高麗連兵, 謀絕新羅入朝之路.
④	신라 귀명 의지 피력, 양국 의도 청병	(a)	謹遣陪臣, 歸命大國, 願乞偏師, 以存救援.
		(b)	謹遣陪臣, 歸命大國, 願乞偏師, 以存救援.
		(c)	謹遣陪臣, 歸命大國, 乞偏師, 救助.
		(d)	使者來乞師.(이후 유관 내용 없음)
		(f)	謹歸命天子.
		(g)	乞兵救援('보장왕 2년(643) 秋 9월' 조 마침)
⑤	태종 질문 1	(a)	帝謂使人曰, 我實哀爾為二國所侵, 所以頻遣使人, 和爾三國. 高句麗·百濟旋踵翻悔, 意在吞滅, 而分爾土宇, 爾國設何奇謀, 以免顛越?"
		(b)	帝謂使人曰, 我實哀爾為三國所侵, 所以頻遣使人, 和爾三國. 高麗·百濟 旋踵翻悔, 意在吞滅, 而分爾土宇, 爾國設何奇謀, 以免顛越?"
⑥	신라 사신 답변1	(f)	帝問, 若何而免?"
		(a)	使人曰, 吾王, 事窮計盡, 唯告急大國, 冀以全之."
		(b)	使人曰, 臣王, 事窮計盡, 唯告急大國, 冀以全之."
⑦	태종 제안 1책	(f)	使者曰, 計窮矣, 惟陛下哀憐"
		(a)	帝曰, 我少發邊兵, 摠契丹·靺鞨, 直入遼東, 爾國自解, 可緩爾一年之圍. 此後知無繼兵, 還肆侵侮, 四國俱擾, 於爾未安. 此為一策.
		(b)	帝曰, 我少發邊兵, 總契丹·靺鞨, 直入遼東, 爾國自解, 可緩爾一年之圍. 此後知無繼兵, 還肆侵侮, 然四國俱擾, 於爾未安. 此為一策.
⑧	태종 제안 2책	(f)	帝曰, 我以偏兵, 率契丹·靺鞨, 入遼東, 而國可紓一歲, 一策也.
		(a)	我又能給爾數千 朱袍·丹幟, 二國兵至, 建而陳之. 彼見者, 以為我兵, 必皆奔走. 此為二策.
		(b)	我又能給爾數千 朱袍·丹幟, 二國兵至, 逮而陳之. 彼見者, 以為我兵, 必皆奔走. 此為二策.
		(f)	我以絳袍·丹幟數千, 賜而國, 至, 建以陣. 二國見, 謂我師至, 必走. 二策也.

⑨	태종 제안 3책	(a)	百濟國, 恃海之險, 不修機械, 男女紛雜, 互相燕聚. 我以數十百船, 載以甲卒, 銜枚泛海, 直襲其地. 爾國以婦人爲主, 爲鄰國輕侮, 失主延寇, 靡歲休寧. 我遣一宗支, 以爲爾國主, 而自不可獨王, 當遣兵營護, 待爾國安, 任爾自守. 此爲三策.
		(b)	百濟國, 負海之險, 不修兵械, 男女分雜, 相好宴聚. 我以數十百船, 載以甲卒, 銜枚汎海, 直襲其地. 爾國以婦人爲主, 爲隣國輕侮, 失主延寇, 靡歲休寧. 我遣一宗枝, 以爲爾國主, 而自不可獨往, 當遣兵營護, 待爾國安, 任爾自守. 此爲四策.
		(f)	百濟 恃海, 不脩戎械 我以舟師數萬, 襲之. 而國女君, 故爲鄰侮. 我以宗室主而國, 待安, 則自守之. 三策也.
⑩	태종 질문 2	(a)	爾宜思之, 將從何事?
		(b)	爾宜思之, 將從何事?
		(f)	使者, 計孰取?
⑪	신라 사신 답변2	(a)	使人但唯, 而無對.
		(b)	使人但唯, 而無對.
		(f)	使者, 不能對.
⑫	태종의 사신 평가	(a)	帝嘆其庸鄙, 非乞師告急之才也.('선덕왕 12년(643) 秋 9월 조 마침)
		(b)	帝難其庸鄙, 非乞師告急之才也.
⑬	태종 새서 작성·전달 새서 내용	(a)	太宗遣司農丞 相里玄獎, 齎璽書, 賜高句麗曰. 新羅委命國家, 朝貢不闕. 爾(=즉 고구려)與百濟, 宜卽戢兵. 若更攻之, 明年當出師, 擊爾國矣.” ('선덕왕 13년(644) 春 正月' 조)
		(b)	於是遣司農丞 相里玄獎, 齎璽書, 賜高麗曰. 新羅委命國家, 朝貢不闕. 爾(=즉 고구려)與百濟, 宜卽戢兵. 若更攻之, 明年當出師, 擊爾國矣.”
		(c)	太宗遣相里玄獎, 齎璽書, 賜高麗曰. 新羅委命國家, 不闕朝獻. 爾(=즉 고구려)與百濟, 宜卽戢兵. 若更攻之, 明年當出師, 擊爾國矣.”
		(e)	又, 遣司農丞 相里玄獎, 齎璽書往, 說諭高麗, 令勿攻新羅.
		(f)	於是, 遣司農丞 相里玄獎, 以璽書, 讓高麗, 且使止勿攻.
		(g)	帝命, 司農丞 相里玄獎, 齎璽書, 賜王曰. 新羅委質國家, 朝貢不乏. 爾(=즉 고구려)與百濟, 各宜戢兵. 若更攻之, 明年發兵, 擊爾國矣.” ('보장왕 3년(644) 春 正月' 조)
		(h)	上命, 司農丞 相里玄獎, 齎璽書, 賜高麗曰. 新羅委質國家, 朝貢不乏. 爾(=즉 고구려)與百濟, 各宜戢兵. 若更攻之, 明年發兵, 擊爾國矣.”
		(i)	太宗, 遣司農丞 相里玄獎, 告諭兩國, 王奉表陳謝.
		(j)	太宗, 遣司農丞 相里玄獎, 齎書, 告諭兩蕃, 示以禍福.
		(k)	帝, 遣司農丞 相里玄獎, 齎詔書, 諭解.

※출전 :

(a) :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善德王 12년(643) 秋 9월 및 13년(644) 春 正月.

- (b) : 『冊府元龜』 권991, 外臣部36, 備禦4, 貞觀 17년(643) 9월 庚辰, 11476~11477쪽.  
 (c) : 『구당서』 권199上, 열전149上, 東夷 新羅, 貞觀 17년(643), 5335쪽.  
 (d) : 『신당서』 권220, 열전145, 東夷 新羅, 貞觀 17년(643), 6203쪽.  
 (e) : 『구당서』 권199上, 열전149上, 東夷 高麗, 貞觀 17년(643), 5322쪽.  
 (f) : 『신당서』 권220, 열전145, 東夷 高麗, 會新羅遣使者上書言, 6188~6189쪽.  
 (g) :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寶臧王 2년(643) 秋 9월 및 3년(644) 春 正月.  
 (h) : 『자치통감』 권 197, 당기13, 太宗 貞觀 17년(643) 9월 庚辰, 6204쪽.  
 (i) :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義慈王 4년(644) 春 正月.  
 (j) : 『구당서』 권199上, 열전149上, 東夷 百濟, 太宗遣司農丞 相里玄獎, 齋書告諭兩蕃, 5330쪽.  
 (k) : 『신당서』 권220, 열전145, 東夷 百濟, 帝遣司農丞 相里玄獎 齋詔書, 諭解, 6199쪽.  
 ※법례 : ①겹선 : 내용상 구분. ②굵게 : (a)·(b)의 지구 차이. ③(a)·(b)·(c)·(f)는 내용상 대응하는 지구를 기준으로 서로 서술.

[표 4]처럼, 유관 자료는 계통별 차이가 있다. 선덕왕본기는 『책부원구』를, 보장왕본기는 『자치통감』을 따랐다. 『구당서』·『신당서』, 신라전·고려전은 『책부원구』·선덕왕본기와 유사하나, 신라전·고려전이 더 간결하다. 의자왕본기는 『구당서』·『신당서』, 백제전을 따르면서 백제의 대응을 추가하였다. 『자치통감』은 『구당서』·『신당서』, 백제전의 영향을 받았다. 상리현장의 새서 전달 시점은 중국 기록에 643년 9월 4일로, 삼국 기록에 644년 정월로 나타난다. 양자의 시차는 새서의 작성·접수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신라의 청병 국서 전달이다. 사안의 중요도와 ①-(f)의 글을 올려 말했다(上書言)”로 보아, 신라는 국서를 보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사건 발단(①), 청병 국서 내용(②~④), 태종-신라 사신 문답·결과(⑤~⑫), 새서 작성·내용·전달(⑬)로 구분된다.

청병 국서의 내용은 ②643년 9월 이전 전황, ③643년 9월 예정 상황과 양국의 의도, ④신라의 귀명 의지 피력과 청병 등 4가지이다. ②·③은 자료 계통별 차이가 있다. ②의 주어는 (a)-(d)가 고구려·백제, (g)·(h)가 백제이다. ③의 주어는 (a)-(c)가 양국, (f)가 고려·백제, (g)·(h)가 ‘백제와(與) 고구려’이다. ②의 전황은 유사하다. ③-(a)-(c), (f)는 양국의 연병·연화, 9월 예정 대공세, 멸망 의도를, ③-(g)·(h)는 입조로 차단만 썼다. ④-(a)-(c)는 귀명 의지 피력과 청병을, ④-(f)는 귀명 의지 피력만, ④-(d)·(g)·(h)는 청병만 썼다. ②·③을 기준으로 하면, 고구려·백제가 주어인 (a)-(d), (f)와 ‘백제와(與) 고구려’가 주어인 (g)·(h)로 구분된다. (g)·(h)는 『구당서』·『신당서』, 백제전이 642년 백제의 신라 40여 성 공취, 당항성 공격, 새서 관련 내용을 이어 쓴 오류를<sup>47)</sup> 답습했으므로, (g)·(h)는 청병 국서의 내용이 아니다.

청병 국서의 내용 중 ②·③의 주어·전황이 주목된다. 신라의 수십 성 상실은 백제 소행이며([표 2]-A-⑭-⑯), 643년에 양국은 신라를 공격하지 않았다. 신라는 백제 소행을 양국 소행이라 하고, 양국은 한통속으로 연병·연화해 9월 신라 멸망·토벌을 도모한다고 하였다. 신라는 귀명 의지를 피력하고 청병하였다. 신라는 양국, 특히 고구려를 전면에 내세워 청병하고, 날조에 가까운 내용을 당에 전달하였다.

태종-신라 사신의 문답·결과(⑤~⑫) 중 ⑤~⑪은 (a)·(b)·(f)만, ⑫는 (a)·(b)만 보이며, 새서의

47) 『구당서』 권199上, 열전149上, 東夷 百濟, [貞觀] 16년(642), 5330쪽 ; 『신당서』 권220, 열전145, 東夷 百濟, 明年(642), 6199쪽.

작성·내용·전달(⑬)은 (d) 외 [표 4]의 자료에 보인다. (a)·(b)·(f)는 맥락이 유사하나, (a)·(b)가 상세하다.

태종은 신라가 멸망을 면할 계책을 묻고(⑤), 신라 사신은 태종에게 계책을 청했다(⑥). 태종의 계책은 3가지이다. 첫째, 소규모 당병+거란병+말갈병으로 요동을 쳐서 1년 정도 신라의 포위를 풀어주나, 추가 공격은 없다(⑦). 둘째, 당군의 붉은(朱·絳·丹) 핫옷(袍)·기치(幟) 수천 개를 신라에 주고, 신라가 신라군을 당군으로 위장시킨다(⑧). 셋째, 백제의 방비가 허술하므로 당이 백제를 공격한다. 대신 신라는 힘을 기를 때까지 선덕왕이 당 황실 남자와 국혼해 남자를 신왕으로 삼고, 당은 신왕 보호를 위해 파병한다(⑨). 태종은 신라 사신의 선택을 묻고(⑩), 신라 사신은 대답이 없었다(⑪). 태종은 신라 사신의 태도를 탄식하였다(⑫). 이어 상리현장이 고구려에 새서를 전하게 하였다. 새서의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신라는 당에 귀명한 국가이다. 둘째, 고구려·백제는 신라 공격을 멈추어야 한다. 셋째, 신라를 다시 치면, 내년에 고구려를 치겠다(⑬).

⑤~⑬에서 6가지가 주목된다. 첫째, 태종의 계책은 신라의 바람과는 거리가 많았다. 신라는 백제의 빈번한 대공세에 대응할 실질적 방어 병력, 나아가 양국 멸망을 위한 대병이 필요하였다. 청병 국서에서 신라는 멸망을 면할 약간의 군사(偏師)를 요청했지만(④-(a)·(b)·(c)), 청병 목적상 약간의 군사는 외교적 수사이다. 태종은 문자대로 소규모 군사(少發邊兵·偏兵)를 쓴 고구려 공격이나, 군기(軍器) 대여, 백제 공격과 신라의 속국화를 제시하므로, 신라 사신은 답이 없었다.

둘째, 태종-신라 사신 문답의 초점은 ⑬으로 보아 고구려 문제이다. 새서의 수신자는 고구려(⑬-(a)·(c)·(e)·(h))이고, 새서의 내용상 주어는 너희와 백제(爾與百濟), 신라 재침 시 응징 대상은 너희 나라(爾國)이다(⑬-(a)·(c)·(g)·(h)). 너희(爾)는 새서 수신자인 고구려를 의미한다. ⑬-(i)·(j)는 새서 수신자를 양국·양변이라 하나, ⑬-(i)·(j)는 새서 내용을 축약한 서술이다.

셋째, 태종의 새서는 청병 국서 접수일에 작성되었다. 중국 자료는 ⑬을 643년 9월 4일의 일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넷째, 상리현장이 새서를 전달한 국가는 고구려이다. 상리현장이 백제를 들른 후 고구려 평양성에서 연개소문과 회담한 후 귀국했다고 하나,<sup>48)</sup> 새서 수신자는 고구려이다. 또 644년 2월 을묘삭(1일, 644.03.14) 상리현장의 보고는 백제의 해명(⑬-(i))이 빠지고, 고구려 정황만 상술되었다.<sup>49)</sup>

다섯째, 태종은 고구려 공격 명분을 축적하고자 신라의 거짓 주장을 수용하였다. 『자치통감』, 『구당서』·『신당서』, 백제전은 642년 백제의 전과를 서술하므로, 태종은 신라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방현령의 죽기 전 간언은 태종의 고구려공격 명분에 신라의 양갈음이 있었음을 보여준다.<sup>50)</sup>

48) 최희준, 2022, 7쪽.

49) 『자치통감』 권197, 당기13, 太宗 貞觀 18년(644) 2월 乙巳朔, 6207쪽 ;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寶藏王 3년(644) 春 正月.

여섯째, 신라는 대당 청병-새서 전달로 전력 복구 시간을 벌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643년 9월~644년 8월 백제의 신라 공격은 없지만, 644년 9월 신라는 백제의 가혜성·성열성·동화성 등 7성을 함락하였다(표 2-①-⑩).

신라는 멸망 위기를 고구려의 주동·소행으로 몰아가면, 양국 멸망에 당을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고구려의 새서에 대한 대응은 여제연화에 힘을 실어주었다. 고구려는 백제와 달리 여제연화를 적극 해명하지 않고, 신라 공격을 계속한다고 하였다.<sup>50)</sup> 백제·고구려는 현실·미래의 신라를 위협하며 타협 여지가 없는 적국이었고, 고구려의 대응은 신라·당의 연합 여지를 높였다. 신라는 백제멸망을 우선으로 삼국통일전쟁을 추진하면서 당이 개입할 방법을 찾아야 하였다. 이후 나당동맹이 체결되고, 백제·고구려 멸망전이 전개되므로,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은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 Ⅲ. 백제·고구려 멸망 전후처리와 양국 평정 교서의 함의

전 장에서는 643년 신라의 전쟁 목적이 양국 멸망으로 변화하므로, 삼국통일전쟁의 연속성을 설명하였다. 삼국통일전쟁의 연속성은 백제·고구려 멸망 후 전후처리에 영향을 미쳤다. 본 장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신라의 삼국통일 인식 발생 과정을 논의하기로 한다.

660년 7월 18일 의자왕이, 668년 9월 21일 보장왕이 나당연합군에 항복하며 백제·고구려는 멸망하였다. 양국 멸망 전쟁을 지휘한 태종무열왕·문무왕은 660년 11월 22일·668년 11월 5일에 왕경으로 돌아왔다. 문무왕은 668년 11월 6일 선조묘에 양국 멸망을 고하고, 669년 2월 21일 양국 평정 교서를 반포하였다. 적국 왕 항복~왕경 귀환을 전후해 진행한 두 왕의 전후처리를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표 5] 태종무열왕·문무왕의 백제·고구려 멸망 전후처리(㉠)와 신라의 백제·고구려 멸망 전후처리 과정(㉡)

태종무열왕·문무왕의 백제·고구려 멸망 전후처리(㉠)					
No.	구분	국가	일자	출전	내용
①	국왕 항복	백	07.18	(a)	의자왕이 태자·웅진방령군 등과 와서 항복(來降) 태종무열왕은 의자왕의 항복 소식을 들음(聞).
				(d)	의자왕이 태자 효(孝), 여러 성(諸城)과 항복.
	국왕 문죄 (問罪)	고	09.21	(b)	보장왕이 연남산 등을 보내 이적에게 항복 요청(請降).
				(e)	보장왕이 연남산 수령 98인과 이적에게 백기(幟) 투항. 연남간이 폐문거수(閉門拒守), 승려 신성은 이적과 내통.
				(e)	신성 개문(開門). 연남간 자진 실패, 보장왕·연남간 생포.
			09.26 즈음	(g)	[날짜 추정]김인문이 보장왕을 이적 앞에 끌어앉혀 죄 추궁. 보장왕이 재배(再拜)하자, 이적이 보장왕을 예로 맞음.
②	당에	백	07.29	(a)	태종무열왕 사비 도착.

50) 『자치통감』 권199, 唐紀15, 太宗 貞觀 22년(648) 7월 癸卯, 6260쪽.

51) 『삼국사기』 권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3년(644) 春 正月.

	노포 전달	☐	.	.	제감 천복을 당에 보내 공훈 보고(露布).
③	승전 연회 (역신 문좌·처형)	☐	08.02	(a)	[연회]주연으로 장사(壯士) 위로 태종무열왕·소정방·제장(諸將)이 당상(堂上)에 앉고, 의자왕과 응은 당하에 앉음. 당상에 있는 이들이 가끔 의자왕에게 술을 따르라고 시켰고, 대신은 이를 보면서 목메어 울었음. [문좌]모척(毛尺)·검일(黔日)의 대야성 함락 책임 문좌. 모척 : 참살, 검일 : 사지를 찢어 강물에 시체를 버림.
		☐	.	.	.
④	유수자 (留守者) 임명	☐	09.03	(a)	낭장(郎將) 유인원이 10,000명으로 사비 유진(留鎭). 왕자 인태·(8)사찬 일원·(9)급찬 걸나가 7,000명으로 받침(副).
		☐	.	.	.
당①	당군의 국왕 · 대신 · 백성 압송	☐	09.03	(a)	소정방이 의자왕, 왕족·신료 93인, 백성 12,000인을 당으로 압송. 김인문, (8)사찬 유돈·(10)대나마 중지 등이 동행.
				(d)	소정방이 의자왕, 태자 효, 왕자 태·용·연과 대신·장사 88인, 백성 12,807인을 당의 장안으로 압송.
				(f)	소정방이 의자왕, 태자 효, 왕자 태 등을 당으로 압송.
	☐	09.26 이후	(b)	이적이 보장왕, 왕자 복남·덕남, 대신 등 200여인을 당으로 압송. (1)각간 김인문, (5)대야찬 주조 등이 이적과 함께 돌아감. 입공 장군 5인(인태·의복·수세·천광·흥원) 등이 수행. 문무왕은 평양성 함락·보장왕 항복 당시 힐차양(陁次壤)에 있었고, 당병이 돌아갔다고 들어 한성으로 귀환함.	
			10월	(g)	이적이 보장왕·연남산·연남간·연남생 등을 당으로 압송.
당②	도독 임명 · 헌부례 시행	☐	09.23	(a)	좌위중랑장(左衛中郎將) 왕문도를 웅진도독으로 삼음.
				(d)	좌위낭장(左衛郎將) 왕문도를 웅진도독으로 삼음. 당에서 헌부례 진행. 의자왕은 사면되나 곧 병사.
			09.28	(a)	왕문도가 삼년산성에서 조서·물품을 태종무열왕에게 전하다 병으로 급사
				(d)	왕문도가 바다를 건너다 사망, 유인궤(劉仁軌)로 교체.
			12.08	(i)	고종이 축천문 문루에서 헌부례를 올리고, 백제 포로를 받아 의자왕 이하를 모두 풀어줌. 천하를 대사(大赦).
☐	.	.	.		
⑤	논공행상 (行在)	☐	.	.	.
		☐	10.22	(b)	한성에서 문무왕이 아래처럼 논공행상함 김유신(圖대각간→圖태대각간) 김인문(1)각간→圖대각간 (2)이찬인 장군→각간 (3)소판 이하 위(位) 1급 상승.  한산주 소감 박경한 - 공적 : 평양성내 전투 중 군주 술탈 참살, 1등 - 포상 : (7)일길찬, 조(租) 1,000석. 혹약령 선극 - 공적 : 평양성 대문(大門) 전투 1등 - 포상 : (7)일길찬, 조(租) 1,000석. 서당당주 김도산 - 공적 : 평양 군영 전투 1등 - 포상 : (8)사찬, 조(租) 700석. 남한산 군사(軍師) 복거 - 공적 : 평양성 북문 전투 1등 - 포상 : 술간, 속(粟) 1,000석. 부양 군사(軍師) 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 : 평양성 남교(南橋) 전투 1등</li> <li>- 포상 : 술간, 속(粟) 700석.</li> </ul> 비열홀 기군사(假軍師) 세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 : 평양성 소성(小城) 전투 1등</li> <li>- 포상 : 고간, 속(粟) 500석.</li> </ul> 한산주 소감 김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 : 사천(蛇川) 전투에서 전사(戰死), 1등</li> <li>- 포상 : 추증 (7)일길찬, 조(租) 1,000석.</li> </ul> 아술 사찬 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 : 사천 전투에서 도강 후 위험한 길에 스스로 들어가 대승하여 공은 1등. 군령을 받지 않아 기록 없음(不錄).</li> <li>- 포상 : 없음. 분해서 자살하려다 주변 사람이 구출해 삶.</li> </ul> (1)(i) 왕경을 유수한 김유신을 圖태대사발한으로 삼고, 식읍 500호, 여장(輿杖) 수여. 김유신의 요속·좌관에 위 1급 수여.
			(g)	김인문을 圖대각간으로 삼고, 식읍 500호 수여.
			(h)	[날짜 추정]강수는 외교·문장에 공이 있어 (8)사찬으로 삼고, 봉록으로 세조(歲租) 200석을 올려줌.
⑥	승전 연회	백	.	.
		고	미상	(b) 문무왕 환국 중 국원 사신 (5)대야찬이 사사로이 연회를 열어 대접. 문무왕, (11)나마 긴주, 긴주 아들 능안 등 참석.
⑦	왕경 귀환	백	11.22	(a) [왕경 귀환]태종무열왕이 백제에서 돌아옴.
	포로 압송	고	11.05	(b) [왕경 귀환·포로 압송]문무왕이 고구려 포로 7,000명과 함께 경사로 들어옴.
⑧	선조묘 고묘	백	.	.
		고	11.06	(b) 문무왕이 문무 신묘와 선조묘 조알, 백제·고구려 멸망 고묘.
⑨	논공행상 전사자 위로 (王京)	백	11.22	(a) 태종무열왕이 논공(論功)하고, 백제 인원(人員)도 재능을 헤아려 임용(量才任用). 계급줄 선복 → (9)급찬 군사(軍師) 두질 → 고간 전사자(戰死者) 4인 : 유사지·미지할·보홍이·설유 → 차등 있게 허직(許職有差). 백제인 임용 좌명 충상·상영, 달솔 자간 → (7)일길찬, 총관 충직(充職) 은솔 무수 → (10)대나마, 대감 충직(充職) 은솔 인수 → (10)대나마, 제감 충직(充職)
				(i) [날짜 추정]김유신을 圖대각간에 제수.
				(g) [날짜 추정]김인문을 (4)파진찬에 제수하고, 또 (1)각간을 더함. 곧 다시 당에 들어가 숙위하는 것은 전과 같이 함.
		고	11.18	(b) 전사자(喪死事) 중 소감 이상 10□□필, 종자 20필 수여.
⑩	도독 임명 · 헌부례 시행	백	.	.
		고	12월	(e) 고종이 함원전에서 고구려 포로를 받음. 우위위대장군(右威衛大將軍) 설인귀를 검교안동도호(檢校安東都護)로 삼고, 병 20,000명으로 평양 진무(鎭撫).
			12월	고종이 보장왕, 고구려 포로를 먼저 태종의 릉(昭陵)에 바치고, 개선가를 부르며 경사에 들어와 태묘(太廟)에 바침.
			12.07	(k) 고종이 함원전에서 고구려 포로를 받음. 보장왕은 자신이 한 정치가 아니므로, 사면하여(赦) 사평태상백(司平太常伯)·원외동정(員外同正)으로 삼음. 연남산은 사재소경(司宰少卿), 승려 신성은 은청광록대부, 연남생은 우위대장군으로 삼음. 이적 이하 봉작·상을 차등 있게 내림. 연남건 검중(黔中) 유배, 부여풍 영남(嶺南) 유배.

			12.17		고종, 아헌(亞憲) 이적이 남교 제사, 고구려 평정 교할.
			12.19		고종이 태묘(太廟) 배알
⑩	양국 평정 교서 반포	㉮	.	699. 02.21	(c)
		㉯	.		
백제·고구려 평정 교서 반포 교서에 양국 평정의 의미, 포상·추증 경과, 사면령 반포 이유, 사면령 내용 등 포함. 사면령의 내용 (1)669년 2월 21일 새벽 이전까지 오역(五逆)을 범해 사형을 받은 죄목 이하로, 옥에 갇힌 죄인은 죄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두 석방. (2)앞서 사면을 받았지만 또 죄를 범해 관작을 빼긴 사람은 관작 복구. (3)도적질한 사람은 석방하되, 훔친 물건을 돌려줄 재물이 없다면 징수의 연한을 두지 말 것. (4)가난해 곡식을 빌린 사람 중 흉년이 든 지방에 사는 사람은 이자·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고, 풍년이 든 지방에 사는 사람은 수확기에 원금만 갚고 이자는 갚지 말 것.					

신라의 백제·고구려 멸망 전후처리 과정(㉮)

No.	사안	백제멸망 전후처리 (660.07.18~660.11.22, 약 4개월)		고구려멸망 전후처리 (668.09.21~669.02.21, 약 5개월)	
		유무	일자·비고	유무	일자·비고
①	국왕 항복	○	07.18	○	09.26
	국왕 문죄(問罪)	.	.	○	09.26(김인문 주도)
②	당에 노포 전달	○	07.29	.	.
③	승전 연회(역신 문죄·처형)-사비	○	08.02	.	.
④	유수(留守) 임명	○	09.03	.	.
⑤	논공행상(행재소, 한성)	.	.	○	10.22
⑥	승전 연회-국원	.	.	○	미상(환국 중 김용장 주도)
⑦	왕경 귀환	○	11.22	○	11.05
	포로 압송	.	.	○	11.05(고구려인 7,000명)
⑧	양국 평정 선조묘 고묘	.	.	○	11.06
⑨	논공행상(왕경)	○	11.18	.	.
	전사자 위로(왕경)	○	11.18	○	11.22(항복 후 2개월)
⑩	양국 평정 교서 반포	.	.	○	669.02.21(항복 후 5개월)

※출전 :

- (a) :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太宗武烈王 7년(660) 秋 7월 18일~11월 22일.
- (b) :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文武王 8년(668) 9월 21일~11월 18일.
- (c) :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文武王 9년(669) 2월 21일.
- (d) :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義慈王 20년(660) 6월.
- (e) :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寶藏王 27년(668) 秋 9월~冬 10월.
- (f) : 『삼국사기』 권43, 열전3, 金庾信 下.
- (g) : 『삼국사기』 권44, 열전4, 金仁問.
- (h) : 『삼국사기』 권46, 열전6, 強首.
- (i) : 『삼국사기』 권38, 잡지7, 職官 上.
- (j) : 『자치통감』 권200, 당기16, 高宗 顯慶 5년(660) 11월 戊戌朔, 632쪽.
- (k) : 『자치통감』 권200, 당기16, 高宗 總章 元年(668) 冬 10월 戊午 및 12월 丁卯·己巳.

※법례 : ①국가 : 백제·고구려는 ㉮·㉹로 표기. ②도독 임명 : 신라왕의 전후처리는 아니나, 사건 전개상 중요하여 표기. ③일자 : 중력을 기준으로 표기. ④[날짜 추정] : 포상 날짜를 알 수 없으면, 대대적인 논공행상이 있던 시점으로 추정 표기. 단 관창의 황산벌 전투 포상(『삼국사기』 권47, 열전7, 官昌)은 표기하지 않음. 관창의 포상 중 하나는 '여로 장사를 지내라'이므로, 행군 중 포상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임. ⑤검선 : ㉮-㉹-㉺의 시차가 3개월이므로 구분.

두 전쟁은 친솔형 전쟁이다. 두 전쟁의 전후처리 기간은 약 4·5개월이고, 주요 사안은 대동소이하다. 국왕 항복·문죄, 노포 처리, 승전 연회, 유수 임명, 논공행상·전사자 위로, 왕경

귀환은 공통이나, 고구려 포로의 왕경 압송·입경, 양국 평정 선조묘 고묘, 양국 평정 교서 반포는 고구려멸망 후에만 보인다. 또 전후처리 사안별 유무·순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양자의 차이와 그 원인을 살피기로 한다.

첫째, 국왕 항복·문죄 중 문죄 사례는 김인문의 보장왕 문죄만 전한다(㉔-①). 김인문이 보장왕의 문죄를 주도한 이유는 문무왕이 평양성에 없었기 때문이다(㉔-⑤-㉔). 의자왕의 문죄는 태종무열왕이 주관한 승전 연회에서 있었다고 판단된다. 승전 연회에서 의자왕은 큰 모욕을 받았고, 모척·검일 등의 역신은 문죄·처형되기 때문이다(㉔-③-㉔). 한편 고구려멸망 후 문무왕이 주관한 승전 연회(역신 문죄·처형)는 보이지 않고, 환국 중 김용장이 주관한 연회만 보인다(㉔-③-⑦). 문무왕의 논공행상은 한성에서 진행되므로(㉔-⑥-㉔), 논공행상 당시 문무왕 주관의 승전 연회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자료적으로 승전 연회의 양상을 구체화하기 어렵다.

둘째, 당에 노포(露布) 전달은 백제멸망 후에만 보이거나(㉔-②), 고구려멸망 후에도 있었다. 당 전기 노포는 행군원수부 병조참군사가 전쟁의 정당성·경과·비용, 전과(노획물·포로·참수된 자 등의 수) 등을 써 상서병부에 올리고, 상서·문하의 결재·심의 후 황제의 재가를 받아 천하에 선포한 전첩 문서이다.<sup>52)</sup> 668년 고종은 고구려멸망전 관련 이적·신라의 공을 포상하고, 김유신의 공은 따로 포상하였다.<sup>53)</sup> 이적이 평양성 전투에 불참한 김유신의 공을 보고할 이유는 없다. 고종의 김유신 포상은 문무왕의 노포 처리를 전제한다.

문무왕은 태종무열왕의 전후처리를 직접 경험하였고, 노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신라 내부에서도 기록된 전공이 없으면 포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㉔-⑥-㉔-b). 신라의 노포는 나당 간 전후처리의 중요 근거가 될 문서였다.

문무왕은 「답설인귀서」에서 668년 이적의 신라 공훈 재산정 발언, 입공(立功) 장군(㉔-⑤-㉔-b) 5인이 장안에서 들은 신라의 공이 없다는 논의, 즉 신라무공론(新羅無功論)을 거론하였다.<sup>54)</sup> 이것은 이적의 불순·부당한 의도, 고종의 묵인·번복 등을 지적해 나당전쟁 발발의 원인이 당에 있다는 해명이다. 백제멸망전에 불참한 이적이 660년 신라의 군기 위반을 구실로 신라의 공훈을 재산정하겠다는 발언은 일종의 위훈삭제를 시도한다는 의미이다. 백제멸망전의 당 측 주장(主將)은 소정방이므로, 이적의 행위는 명백한 월권이었다. 또 이적의 발언은 660년 고종이 헌부례를 통해 천하에 선포한 신라의 전과를 번복한다는 의미이다. 문무왕이 「답설인귀서」에서 나당전쟁 발발에 대한 당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는 이유의 하나는 668년에 이미 처리한 노포의 전거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셋째, 백제멸망 후에만 사비를 유수(留守)할 사람을 임명하였다(㉔-④). 이것은 2가지 가능

52) 김정식, 2019, 53-61쪽.

53) 『삼국사기』 권43, 열전3, 金庾信 下, 總章 元年(668) 唐皇帝既策英公之功.

54)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文武王 11년(671) 秋 7월 26일, 大王報書云, 英公漏云. 입공장군은 전첩 보고서로 이적을 따라 당에 간 인태·의복·수세·천광·홍원을 말한다(정구복 外 역주, 2012, 234쪽 ; 崔根泳·嚴聖欽, 2004, 86쪽). 660년 소정방을 따라 당에 간 김인문·유돈·중지(당①-a)의 역할도 같다고 이해된다.

성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 승전 연회 후부터 백제부흥운동이 거셌다. 사비 유수를 포기하면, 백제 복국, 고구려 정벌이 무산될 소지가 있었다.

둘, 사비보다 평양을 유수할 필요성이 적었다. 나당연합군의 사비성 포위·함락 날짜는 알기 어렵지만, 사비성 전투는 최장 6일을 넘지 않는다. 12일 나당연합군은 사비성 포위를 위해 소부리 별관에 나아갔다. 13일 밤 의자왕은 웅진으로 도주하고, 소정방은 사비성을 포위하였다. 18일 의자왕이 항복하였다.<sup>55)</sup> 사비성은 지휘부 붕괴로 삼시간에 함락되었다.

반면 평양성 전투는 포위만 한 달이 넘었다.<sup>56)</sup> 문무왕의 논공행상은(㉠-㉢-㉣-(b)) 평양성 안·대문·군영·남교·소성과 사천(蛇川) 등 곳곳에서 전투가 격렬했음을 보여준다. 또 고대국가의 도성은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므로, 이적이 압송한 포로 20여만명과 신라가 압송한 포로 7,000명(㉠-㉢-㉤-(b)) 중 평양성 주민의 비율은 매우 높았다고 판단된다. 고구려멸망 과정에서 평양성의 인적·물적 손실은 격심했다고 보이므로, 평양 유수는 사비 유수보다 필요성이 적었다.

셋째, 양국 평정에 대한 선조묘 고묘, 교서 반포는 고구려멸망 후에만 있었다(㉢-㉣-㉤). 선조묘, 즉 종묘 고묘는 개선 의례의 일종이다.<sup>57)</sup> 백제멸망 후 선조묘 고묘나 교서 반포 등과 유사한 성격의 조치는 없었다. 제문·교서의 주요 사안은 백제·고구려 평정에 대한 문제이며, 포로 압송 여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660년 백제멸망전의 개선 의례가 보이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백제멸망전 개선 의례 수행은 중대 왕실 개창의 정통성·권위를 강화하는 사안이므로, 태종무열왕·문무왕이 회피할 이유가 없다. 특히 백제멸망은 태종무열왕의 숙원사업이었다.

이 이유로 2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 백제부흥운동의 격화로 개선 의례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3가지 문제가 있어 설득력이 낮다. ①양국 멸망 전후처리 사안·기간은 대동소이하다. ②당 고종의 헌부례·대사는 백제부흥운동과 관계 없이 이루어졌다. 백제부흥운동은 승전 연회 후 시작되며, 소정방은 사비를 유수할 사람을 임명한 후 환국하였다(㉠-당①-㉣). 고종은 소정방에게 백제부흥운동 상황을 보고 받았겠지만, 개선 의례를 시행하였다(㉠-㉣-당②-(j)). 660년 소정방의 보고는 백제멸망 선포가 반복될 가능성을 내포했지만, 고종은 현상을 위주로 개선 의례를 진행하였다. ③문무왕은 662년 2월 탐라가 속국이 되자, 3월 백제 평정을 기정사실화하며(既平百濟) 대사·대포(大酺)를 진행하였다.<sup>58)</sup> 대포는 태평을 맞아 국가에서 술을 내리는 호화 연회이나,<sup>59)</sup> 개선 의례는 아니다. 662년 백제부흥운동은 거

55)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太宗武烈王 7년(660) 秋 7월 12·13·18일 ;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義慈王 20년(660) 6월, 遂與太子孝.

56)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寶藏王 27년(668) 秋 9월.

57) 채미하, 2010, 111~112쪽. 이 글에서는 선조묘 고묘를 고구려 토벌전의 개선 의례로 보았다. 그러나 포로 압송과 제문을 고려하면, 양국 멸망 전쟁의 개선 의례인 헌부례를 시행했다고 이해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58)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2년(662) [2월]·3월.

59) 정덕기, 2023(a), 182쪽.

했다. 7월 30일 고종은 문무왕의 유수 요청이 없다면, 백제 고지의 당군 철수를 종용하였다. 유인계는 백제 복국에 따른 고구려정벌 무산을 우려해 증원군을 요청하였다.<sup>60)</sup> 662년 고종은 헌부례 시행 약 19개월 만에 백제멸망 선포를 반복할 상황에 처했다. 662년 8월 신라는 내사 지성의 백제 잔적을 토파하고, 대당·남천주 총관 진주·진흠의 직무태만을 강하게 처벌하였다.<sup>61)</sup> 고종의 헌부례, 문무왕의 백제 평정 기념 대포는 백제부흥운동 상황과 별개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660년 백제멸망 개선 의례가 보이지 않는 이유를 백제부흥운동과 연결해 이해하기 어렵다.

둘, 신라가 백제부흥운동 종료를 백제멸망 완료로 인식하여 개선 의례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2가지 문제가 있어 설득력이 낮다. ①665년 3월 백제부흥운동 종료<sup>62)</sup> 후 신라는 백제 멸망 개선 의례를 치르지 않았다. ②고구려부흥운동을 고려하면, 668~669년 고구려멸망전 개선 의례를 치를 수 없다. 기타 태종무열왕·문무왕이 고구려멸망 전쟁의 개선 의례만 시행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

양국 멸망 전후처리 중 가장 큰 차이는 고구려멸망 전후처리에만 보이는 고구려 포로의 왕경 압송·입경, 양국 평정 선조묘 고묘, 양국 평정 교서 반포이다. 유관 자료를 B로 인용하였다.

B-①. 11월 5일. 왕이 사로잡은(虜) 고구려 사람 7,000명과 경사로 들어왔다. [11월] 6일. 문무 신료를 통솔해 선조묘를 조알하였다. 고(告)하였다. ④삼가 선조의 뜻을 잇고자, 대당과 같이 의병(義兵)을 일으켜 백제·고구려에 죄를 묻고(問罪), 원흉을 처단해(伏罪) 국운이 태평(泰靜)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이를 아뢰오니, 신께서는 그것을 들으소서!”<sup>63)</sup>

B-②. 개선(凱旋)을 고하는 날에는 남문 밖에 포로(俘)·베어낸 왼쪽 귀(馘)를 진열하며, 북쪽을 향하되 서쪽이 뒷자리가 된다. 군실(軍實)은 뒤에 늘어놓는다. 고전(告奠)의 예는 [묘예] 고하는 예(告禮)와 같다.<sup>64)</sup>

B-③. [2월 21일 문무]대왕이 못 신하를 모아 교서를 내렸다. “④지난날 신라는 양국에 끼어 북벌(北伐)·서침(西侵)하니 잡시도 편한 날이 없었다. 전사의 시체는 뿔굴에 들판에 쌓이고, 몸·머리는 나라 경계에 나뉘었다. ⑤선왕(=태종무열왕)은 백성이 해를 당함을 근심해 천승의 귀중함을 잊고, 바다를 건너 입조해 황제께 청병(請兵)하였다. 본래 양국을 평정해 길이 싸움을 없게 하고, 누대의 깊은 원수를 갚아 백성의 남은 명을 보존하려 하셨다. ⑥백제는 평정되었으나, 고[구려]는 멸하지 못했다. 과인(=문무왕)은 평정을 이루려던 유업을 이어 끝내 선왕의 뜻을 이뤘다. 지금 두 적국이 이미 평정되니 사방이 태평(靜泰)하다. ⑦전장에서 공을 세운 자에게 모두

60) 『자치통감』 권200, 당기16, 高宗 龍朔 2년(662) 7월 丁巳, 6329~6330쪽.

61)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2년(662) 8월.

62)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4년(665) 3월.

63)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8년(668) 11월. “五日. 王以所虜高句麗人七千, 入京. 六日. 率文武臣寮, 朝謁先祖廟. 告曰. 祇承先志, 與大唐同舉義兵, 問罪於百濟·高句麗, 元凶伏罪, 國步泰靜, 敢茲控告, 神之聽之.”

64) [唐]蕭嵩 等 撰, 『大唐開元禮』 권83, 軍禮, 凱旋獻俘, 402쪽. “凱旋告日, 陳俘·馘於南門外, 北面西上, 軍實陳於後, 其告奠之禮, 皆與告禮同.”

이미 상을 주고, 전사한 혼령에게 명복 빌 재물을 추증하였다. ㉔다만 옥에 있는 사람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받지 못했고, 형구로 고생하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은혜를 입지 못했다. 이 일을 생각하니, 먹고 잠이 편치 않다. ㉕나라 안 죄수를 사면한다.” 65)

B-①은 11월 5·6일 문무왕의 왕경 귀환·선조묘 고묘와 당시 의례에 쓴 제문(祭文)을 보여 준다. 문무왕이 포로를 입경(入京)시켰고, 하루 뒤 문무왕·문무 신료가 선조묘 제사를 지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고구려 포로를 왕경에서 처리할 이유가 있고, 이것은 선조묘 고묘와 관계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B-②는 당의 헌부례를 보여준다. 헌부례는 전쟁 승리를 도운 태묘·태사의 제신에게 고례(告禮)·헌부(獻俘)로 감사를 표하고, 황제가 전과를 과시해 왕조의 정당성과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목적을 지닌 개선·전첩 의례이다.<sup>66)</sup> 고하고 제사하는 예는 고묘 의례와 같았다.

B-②는 헌부례의 제물이 포로·베어낸 왼쪽 귀·군실이며, 포로·베어낸 왼쪽 귀 뒤에 군실을 진설한다고 하였다. 베어낸 왼쪽 귀는 주벌(誅伐)·복주(伏誅)의 증표, 공훈을 세는 수단이다.<sup>67)</sup> 군실은 노획한 무기(軍器)·포로 등 전리품을 말하나,<sup>68)</sup> B-②의 군실은 무기 등 전리품만 말한다. 포로와 베어낸 왼쪽 귀는 산 자와 죽은 자에 대한 전과이고, 군실보다 앞에 진설되기 때문이다.

즉 헌부례는 인적·물적 전리품 등을 제물로 선조묘 등에 바치는 헌부, 제사를 지내며 제문을 선조묘 등에 고하는 고례로 구성된 개선 의례이다. 고례·헌부를 고부(告俘)로 축약한 용례는 헌부례의 구성에서 비롯하였다.<sup>69)</sup> 헌부·고부 등 용례, 제물의 진설 순서에서 포로가 가장 앞서는 점 등은 헌부례의 핵심이 포로를 제물로 바치는 것임을 알려준다. 따라서 B-①은 668년 11월 6일 문무왕이 시행한 헌부례와 헌부례에서 쓴 제문을 수록한 기사이다.

제문의 주요 사안은 선조 과업인 백제·고구려의 문죄·복죄 완료이다. 이것은 신라가 삼국통일전쟁을 연속된 전쟁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태종무열왕은 백제멸망 개선 의례를 시행

65)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9년(669) 2월 21일. “大王會羣臣，下教。 “往者，新羅，隔於兩國，北伐西侵，暫無寧歲。戰土曝骨，積於原野，身·首分於庭界。先王愍百姓之殘害，忘千乘之貴重，越海入朝，請兵絳闕。本欲平定兩國，永無戰鬪，雪累代之深讎，全百姓之殘命。百濟雖平，高麗未滅。寡人承克定之遺業，終已成之先志。今兩敵既平，四隅靜泰。臨陣立功者，並已酬賞，戰死幽魂者，追以冥資。但，囹圄之中，不被泣辜之恩，枷鎖之苦，未蒙更新之澤。言念此事，寢食未安，可赦國內。” ”

66) 김정식, 2023, 125~131쪽.

67) 『毛詩正義』 권23, 大雅, 文王之什, 皇矣, 1216~1217쪽. “攸誠安安.【[唐]孔穎達 正義曰：有訊·誠者，美文王以德服眾，不至於破國壞城耳。於時，非無拒者，故得有訊·誠。‘誠獲’，「釋詁」文。…「玉藻」云。 “聽嚮任左。”故不服者，殺而獻其左耳曰，誠罪。其不聽命服罪，故取其耳，以計功也。】”

68) 『毛詩正義』 권23, 大雅, 湯之什, 抑, 1369~1370쪽. “用戎戒作.【[唐]孔穎達 正義曰：以‘用戎戒作’，謂兵戎備之。…用兵是將帥之事，故知戒將帥之臣，以治軍實也。…軍實者，即車·馬·弓·矢·戎·兵，是也。弓矢即戎兵，而又言戎兵，容戈·盾·矛·戟之類，軍之所用皆是。】” ; 『春秋左傳正義』 권3, 隱公 5년 (BC 718), 107쪽. “傳：歸而飲至，以數軍實.【[晉]杜預 注：飲至於廟，以數車徒器械，及所獲也。】” ; 『春秋左傳正義』 권17, 僖公 33년(BC 627), 547쪽. “傳：先軫朝，問秦囚。公曰。 “夫人請之，吾舍之矣。”先軫怒曰。 “武夫力而拘諸原，婦人暫而免諸國。墮軍實而長寇，讎亡無日矣。” ”

69) 『신당서』 권215上, 열전140上, 突厥 上, 6035쪽. “頡利至京師，告俘太廟。”

하지 않았고(㉠-㉡-㉢), 문무왕은 양국 멸망을 포괄해 개선 의례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668년 논공행상 대비 660년 논공행상이 전쟁 준비에 가까운 이유도 삼국통일전쟁의 연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660년 논공행상은 태종무열왕이 재능을 헤아려 백제인을 총관·대감·제감 등 무관에 충원한 사실을 특기하였다. 반면 668년 논공행상은 문무왕의 포상만 쓰고, 무관 충원은 특기하지 않았다. 668년에도 무관 전사·충원 조치가 있었겠지만, 660·668년 논공행상과 관련해 특기한 내용은 차이가 있다. 이것은 668년 논공행상보다 660년 논공행상이 전쟁 준비에 더 가까운 성격이 있어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B-③은 양국 평정 교서의 일부로, 사면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분량 관계상 생략하고 인용하였다. B-③은 ‘양국 평정 이전 상황(㉠)→태종무열왕의 대당 청병·양국 평정 의도(㉡)→태종무열왕·문무왕의 양국 평정이 지닌 의미(㉢)→양국 평정 후속 조치(㉣)→사면령 반포 이유(㉤)→사면령(㉦)’ 순서로 구성되었다.

B-③에서 주목할 것은 3가지이다. 첫째, ㉠은 진흥왕 이래 왕실의 삼국정립을 비판하고, 상대사를 재평가하였다. ㉠은 신라의 고구려·백제 공격을 양국 평정 이전 빈번한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7세기 전반 삼국 항쟁에서 신라는 대개 방어자이므로, ㉠의 북벌·서침은 진흥왕의 치적을 요약한 서술이기 때문이다. 또 태종무열왕이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란 점을 고려하면, ㉠은 삼국정립을 고수한 진평왕 이후 중고 왕실에 대한 비판이다.

둘째, ㉡는 태종무열왕의 대당 청병·양국 평정 의도가 전쟁 소멸, 부당한 침략 보복 등 위민(爲民)에 있고, ㉢는 태종무열왕·문무왕이 양국을 평정해 태평에 이르렀다고 서술하였다. ㉡는 대당 청병·양국 평정 과업을 몸소 행한 선왕을 헌창하고, ㉢는 남은 과업을 마쳐 태평을 만든 문무왕의 치적을 강조하였다. ㉡·㉢는 양국 멸망 전쟁의 목표가 신라의 생존·안녕을 위한 것임을 천명하므로, 헌부례 제문의 양국 평정 인식(B-①-㉠)과 맥락이 유사하다. 이것과 ㉠의 의미를 함께 고려하면, ㉡·㉢는 양국 평정 완료를 통해 태종무열왕 이후 왕실의 정통성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서술이다.

셋째, ㉣는 양국 평정 후속 조치로 논공행상·추증의 진행을, ㉤는 사면 이유를, ㉦는 사면령을 서술하였다. 사면령은 국내, 즉 신라의 실효 지배 영역에 사는 관인·백성의 정치·경제 범죄에 적용되었다(〈표 5〉-㉠-㉢(c)). 사면령은 전승 기념·민심 수습, 빈곤층이 지배층의 예측노동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sup>70)</sup> 민의 안정화, 왕의 지배를 민에게 전면적으로 관철한 공민화 조치로<sup>71)</sup> 이해되었다. 또 사면령을 통해 훈련된 적군 포로, 사면된 장정을 신규 병력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sup>72)</sup>

사면령의 오역(五逆, 〈표 5〉-㉠-㉢(c)-(1))은 모반(謀反)·모반(謀叛), 대역(大逆), 악역(惡逆), 불의(不義)·불신(不信), 부도(不道)이다. 신라의 모반(반)죄는 당·일본의 10악(惡)·8학(虐) 중 첫째·셋째인 모반(謀反)·모반(謀叛)을 묶은 것으로, 사직·국가의 위해를 피하거나, 나라를 배반

70) 尹善泰, 2023, 127쪽.

71) 김영하, 2007, 182쪽.

72) 이상훈, 2012, 82~83쪽.

해 적국을 따르고자 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sup>73)</sup>

문무왕이 헌부례 시행 약 4개월 만에 양국 평정 교서·사면령을 추가로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사면령이 주요 목적이 전승 기념, 민심 수습 등에만 있었다면, 헌부례 시행과 사면령 반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고종은 백제멸망 후 헌부례 시행과 천하 대사를 함께 진행하였다(〈표 5〉-㉠-㉡-㉢). 교서의 양국 평정 인식은 헌부례 제문의 양국 평정 인식(B-①-㉠)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669년 사면령을 추가로 내릴 이유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이유로 나당전쟁의 조짐과 B-①-㉠의 문죄·복죄 완료, 모반(반)죄 사면의 필요성이 주목된다. 669년 2월은 668년 9월 하순 이후 당에 입조한 입공장군 5인의 환국 예상 시기이다. 670년 7·12월 흥원·수세의 활동이 보이므로,<sup>74)</sup> 670년 7월 이전 입공장군 5인은 환국하였다. 669년 5월 문무왕은 각간 흠순·파진찬 양도를 당에 사죄사로 보냈다.<sup>75)</sup> 사죄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사죄사 파견은 나당 관계 변화에 대한 신라의 대응이다. 입공장군의 환국 예상 시기, 668년경 당에서 돌던 신라무공론, 669년 5월 사죄사 파견 등으로 보아 신라는 늦어도 669년 5월 이전에 나당전쟁의 조짐을 감지하였다. 이 상황에서 B-③이 반포되었다.

B-①-㉠은 양국 평정을 신라가 당과 의병(義兵)을 일으켜 양국의 죄를 몰어 처단한 행위, 즉 정벌로 규정하였다. 신라는 양국에 대한 문죄·복죄를 마쳤으므로, 신라의 실효 지배 영역에 사는 신라인-백제·고구려 유민의 적대 관계는 소멸하였다. 삼국통일전쟁 중 신라에 저항해 투옥된 백제·고구려 유민이나, 이적(利敵) 행위를 하거나 이적 행위를 했다고 의심받아 투옥된 신라인은 상당했다고 판단된다. 진주·흠순처럼, 당시 신라는 죄질 대비 처벌의 강도를 높게 처벌했기 때문이다.

B-③는 국내 신라인-백제·고구려 유민 간 적대 관계 소멸을 근거로 모반(반)죄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면과 모반(반)죄에 해당하나 투옥되지 않은 사람의 추가적인 문죄가 없음을 천명한 조치이다. 투옥될 상황이라도 사면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석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B-③는 나당전쟁의 조짐을 감지하며 반포되므로, 백제·고구려 유민을 신라인으로 흡수해 나당전쟁 준비를 도모한 조치이다.

B-③는 나당전쟁을 앞둔 신라가 백제·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결합하는 정책적·합법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669년 2월 안승의 투항 대상은 신라로 나타나고,<sup>76)</sup> 670년 3월 나당전쟁의 서전인 오골성 전투는 사찬 설오유의 부대와 태대형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군이<sup>77)</sup> 연합하여 진행되기 때문이다. 신라는 고구려멸망의 주범이었지만, 약 5~18개월 만에 신라를 투항·연합

73) 한영화, 2015, 158·162·166~170쪽.

74)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文武王 10년(670) 秋 7·12월.

75)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文武王 9년(669) 夏 5월.

76) 669년 2월 안승의 신라 투항은 670년 이후 안승의 신라 남하와 관련해 보거나(임기환, 2003, 294~297쪽), 669년 2월 안승의 신라 투항 시도와 좌절로 보기도 한다(김강훈, 2022, 127~137쪽). 안승의 신라 투항에 대한 해석은 차후 과제이나, 이 글에서는 B-③이 안승의 투항 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77) 이정빈, 2008, 134~141쪽.

의 대상으로 인식한 일부 고구려인이 나타났다.

나당전쟁의 조짐 속에서 반포한 양국 평정 교서는 삼국통일인식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신라는 나당전쟁을 준비하며 백제·고구려 유민을 신라인으로 흡수해야 하였고, 양국 평정 교서 반포는 신라인과 양국 유민이 결합할 근거를 구축하였다. 이 결과 나당전쟁은 신라·고구려 연합군의 활동으로 개전하였다. 이 상황이 유지되면 나당전쟁은 삼국의 백성을 대표하는 신라와 당의 전쟁으로 규정될 것이었다. 또 신라의 양국 멸망·평정 인식은 삼국통일인식으로 전환될 것이었다. 양국 평정 교서는 일종의 속인(屬人) 문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신라의 삼국통일인식이 배태될 가능성을 내포하였다. 674년 “삼한이 일가를 이루고 백성은 두 마음이 없다”란 김유신의 발언은<sup>78)</sup> 신라인, 백제·고구려 유민이 나당전쟁을 치르는 현상과 양국 평정 교서로 배태된 신라의 삼국통일인식을 반영한 발언이다.

#### IV. 맺음말

이 글은 신라가 643년에 인식한 삼국통일전쟁의 연속성, 668-669년에 진행한 양국 멸망 전 후처리의 관계를 검토하고, 양국 평정 교서의 함의를 통해 삼국통일 인식의 발생 과정을 논의하였다.

중고기 전반 진흥왕의 영역 팽창은 삼국정립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삼국정립은 삼국 공존을 인정하고, 신라의 삼국 항쟁 주도권을 확보해 신라 우위의 삼국 관계 정립을 목표로 하는 사고이자, 진흥왕의 전쟁 수행 목적이다. 삼국정립은 중고기 후반에 계승되었다.

602-659년 신라-백제·고구려 전쟁의 전황 및 신라의 청병 외교 현황을 고려하면, 신라는 643년 전쟁 목적을 삼국정립에서 양국 멸망으로 전환하였다. 642년 백제의 신라 41성 공취는 신라사 초유의 대패를 의미하며, 왕경 서쪽 1차 방어선 붕괴, 심각한 전력 손실, 여유 병력 부재, 멸망 위기 등을 초래하였다. 신라는 백제의 빈번한 대공세에 대응하고자 대고구려·대당 청병 외교를 전개하였다.

642년 신라의 대고구려 청병은 실패하나, 신라는 대고구려 청병을 통해 고구려의 고토 회복 의지와 신라-고구려 관계의 개선 여지가 없음을 인식하였다. 신라는 현실·미래의 위협을 백제·고구려로 인식하고, 삼국정립을 양국 멸국으로 전환하며 대당 청병을 추진하였다.

643년 신라는 당에 청병하며 양국을 한통속으로 몰았다. 당은 고구려 공격 명분을 축적하고자 신라의 주장을 수용하고, 새서를 통해 삼국에 개입하였다. 신라는 자국 멸망 위기의 원인을 고구려로 몰아가면, 양국 멸망에 당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다. 백제는 여제연화를 부인하였다. 고구려는 여제연화를 적극 해명하지 않았고, 고구려의 대응은 신라·당의 연합 여

78) 『삼국사기』 권43, 열전3, 金庾信 下, [唐 高宗]咸亨 4년 癸酉(673) 夏 6월. “三韓爲一家, 百姓無二心.”

지를 높였다. 이후 양국 멸망을 목표로 나당동맹이 체결되었고, 삼국통일전쟁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은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삼국통일전쟁의 연속성은 신라의 양국 멸망 전후처리에 반영되었다. 양국 멸망 전후처리 사안·기간은 유사하나, 고구려멸망 후에만 고구려 포로의 왕경 압송·입경, 양국 평정 선조묘 고묘, 양국 평정 교서 반포 등이 이루어졌다.

고구려 포로의 왕경 압송·입경과 양국 평정 선조묘 고묘의 시차는 1일이고, 고구려 포로를 왕경에서 처리할 이유는 선조묘 고묘와 관계가 있다. 이것은 고구려멸망전 개선 의례로 헌부례가 시행되었음을 알려준다. 백제멸망전 개선 의례는 시행되지 않았고, 헌부례 제문의 주요 사안은 백제·고구려의 문죄·복죄 완료이다. 따라서 헌부례 시행은 삼국통일전쟁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헌부례 시행 4개월 후 양국 평정 교서와 사면령이 반포되었다. 교서는 진흥왕 이래 중고 왕실의 삼국정립을 비판하며, 상대사를 재평가하였다. 또 양국 평정 완료를 통해 태종무열왕 이후 왕실의 정통성과 새 시대의 개막을 강조하며, 사면령을 내렸다. 양국 평정 교서는 신라가 나당전쟁 조짐을 감지한 시기에 반포되었고, 교서의 양국 평정 인식은 헌부례 제문의 양국 평정 인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헌부례 제문은 양국 평정을 정별로 규정하였다. 신라는 당과 의병을 일으켜 양국의 죄를 묻고 처단했기 때문이다. 신라는 양국의 문죄·복죄를 마쳤으므로, 신라가 실효 지배하는 영역에 사는 신라인·백제·고구려 유민의 적대 관계는 소멸하였다.

양국 평정 교서의 사면령에는 오역(五逆)에 해당자의 사면이 있다. 오역은 사직·국가의 위해를 꾀하거나, 나라를 배반해 적국을 따르고자 꾀하는 행위인 모반(반)죄를 포함하였다.

양국 평정 교서 반포는 신라인·백제·고구려 유민 간 적대 관계 소멸을 근거로 모반(반)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면하며, 사면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추가 문죄가 없음을 천명한 조치이다. 또 양국 유민을 신라인으로 흡수해 나당전쟁 준비를 도모한 조치이다.

양국 평정 교서는 나당전쟁을 앞둔 신라가 백제·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결합하는 합법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신라는 고구려멸망의 주범이나, 교서 반포 후 약 5~18개월 만에 신라를 투항·연합의 대상으로 판단한 일부 고구려인이 나타났다.

신라는 나당전쟁을 준비하며 백제·고구려 유민을 포로·죄인이 아니라 신라인으로 흡수할 수단을 찾아야 하였다. 이 결과 나당전쟁은 신라·고구려 연합군의 활동으로 개전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면서 나당전쟁은 삼국의 백성을 대표하는 신라와 당의 전쟁으로 규정되었다. 또 양국 평정 교서는 속인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신라의 양국 멸망·평정 인식은 삼국통일인식으로 전환되었다.

투고일: 2024.10.08, 심사개시일: 2024.11.29, 게재확정일: 2024.12.09.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北京,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宋]王欽若 等 編纂, 周勛初 等 校訂, 2006, 『冊府元龜』(校訂本), 南京, 鳳凰出版社.

池田溫 解題, 古典研究會 出版, 1972, 『大唐開元禮【附 大唐郊祀錄】』, 汲古書院.

[漢]毛亨 傳 / [漢]鄭玄 注 / [唐]孔穎達 疏 /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整理, 2000, 『毛詩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周]左丘明 傳 / [晉]杜預 注 / [唐]孔穎達 正義 /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整理, 2000, 『春秋左傳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기경량, 2019, 「일통삼한 의식」과 표상으로서의 ‘삼한’, 『역사비평』128.

김강훈, 2022, 『고구려부흥운동 연구』, 학연문화사.

김덕원, 2022, 「나당동맹의 성립 과정」, 『민족문화연구』95.

김병남, 2004, 「백제 威德王代の 정치 상황과 대외 관계」, 『韓國上古史學報』43.

김수태, 2013, 「[서평]현재적 관심에서 새롭게 서술된 한국고대사의 흐름-김영하,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한국고대사연구』70.

김수태, 2014,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新羅史學報』32.

김수태, 2015, 「일연의 삼한·삼국통일론」, 『서강인문논총』43.

김수태, 2017, 「『삼국유사』의 편목구성과 삼한·삼국통일론」, 『新羅史學報』41.

김영하, 2007, 『新羅中代社會研究』, 일지사.

김영하, 2009, 「7세기 후반 한국사의 인식문제-신라의 백제통합론과 삼국통일론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146.

김영하, 2012,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영하, 2014, 「신라의 ‘통일’영역 문제-교과서 내용의 시정을 위한 제언-」, 『韓國史學報』56.

김영하, 2016, 「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와 전쟁-신라의 백제 통합과 관련하여-」, 『新羅史學報』38.

김영하, 2018, 「[說林]신라의 ‘백제통합’과 ‘일통삼한’ 재론-최근의 사료 비판과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89.

김영하, 2019(a), 「[說林]신라의 ‘백제통합’과 ‘일통삼한’ 재론2-핵심 사료의 쟁점과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95.

김영하, 2019(b), 「신라의 ‘삼국통일론’은 타당한가」, 『역사비평』129.

김정식, 2019, 「唐 前期의 奏事文書와 露布」, 『中國古中世史研究』51.

김정식, 2023, 「唐 前期 戰捷 公布 儀禮와 그 성격-獻俘禮·選露布儀禮를 중심으로-」, 『中國

- 古中世史研究』69.
- 김진한, 2014, 「『答薛仁貴書』에 보이는 신라, 당 밀약의 사료적 검토」, 『인문논총』71.
- 김홍규, 2007, 「신라통일 담론은 식민사학(植民史學)의 발명인가」, 『창작과 비평』145.
-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노태돈, 2011, 「[說林]7세기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 『韓國史研究』154.
- 노태돈, 2016, 「삼한일통의식의 형성 시기에 대한 고찰-일본서기 ‘삼한’ 기사의 분석을 중심으로-」, 『木簡과 文字』16.
- 李昊榮, 1999, 「統一新羅’ 號稱 問題」, 『白山學報』52.
- 박남수, 2016, 「신라 문무대왕의 삼국통일과 宗廟制 정비」, 『新羅史學報』38.
- 박종욱, 2022, 「7세기 중엽 국제정세의 변화와 백제 의자왕대 한강유역 공격」, 『한국고대사탐구』42.
- 윤경진, 2013, 「『청주운천동사적비』의 건립 시기에 대한 재검토」, 『사림』45.
- 윤경진, 2014, 「신라 통일기 금석문에 나타난 天下觀과 歷史意識-三韓一統意識의 성립 시기 고찰-」, 『사림』49.
- 윤경진, 2015(a), 「신라 興德王代 체제 정비와 金庾信 追封-三韓一統意識 출현의 일 배경-」, 『사림』52.
- 윤경진, 2015(b), 「신라 神武-文聖王代 정치 변동과 三韓一統意識의 출현」, 『신라문화』46.
- 윤경진, 2015(c), 「신라 景文王의 통합 정책과 皇龍寺九層木塔의 改建」, 『韓國史學報』61.
- 윤경진, 2016(a), 「三韓一統意識의 성립 시기에 대한 재론」, 『韓國史研究』175.
- 윤경진, 2016(b), 「중국·일본의 ‘三韓’ 인식에 대한 재검토」, 『木簡과 文字』17.
- 윤경진, 2016(c), 「671년 『答薛仁貴書』의 ‘平壤已南 百濟土地’에 대한 재해석 : 백제의 영토의식과 溟河의 새로운 이해」, 『역사문화연구』60.
- 윤경진, 2019(a), 「신라의 영토의식과 삼한일통의식」, 『역사비평』126.
- 윤경진, 2019(b), 「『청주운천동사적비』의 건립 시기와 건립 배경-최근 비판에 대한 반론과 추가 판독-」, 『韓國史研究』186.
- 윤경진, 2019(c), 「신라 ‘삼국통일’ 논쟁의 논점과 방향」, 『역사비평』129.
- 윤경진, 2019(d), 「[설림]三韓一統意識은 7세기의 이념인가-백제병합론의 반론에 대한 재론」, 『한국고대사연구』93.
- 윤경진, 2023(e), 「『청주운천동비』의 판독과 건립 시기에 대한 종합적 검토」, 『木簡과 文字』31.
- 尹善泰, 2003, 「新羅 中代의 刑律」, 『강좌 한국고대사 3』,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윤선태, 2007, 「『통일신라』의 발명과 근대역사학의 성립」, 『新羅文化』29.
- 윤선태, 2009, 「『신라통일론』을 다시 말한다」, 『창작과 비평』146.
- 윤진석, 2020, 「648년 당태종의 ‘평양이남 백제토지’ 발언의 해석과 효력 재검토-‘신라의 백제통합론’과 ‘삼한일통의식 9세기 성립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34.
- 윤진석, 2022, 『교양인을 위한 역사학 교실』, 이른비.

- 李基白·李基東, 1982, 『韓國史講座 I - 古代編』, 一潮閣.
- 이상훈, 2012,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朴英社.
- 이영호, 2008, 「서평 : ‘신라삼국통일론’에서 ‘남북국론’으로-김영하, 2007, 『新羅中代社會研究』, 일지사-」, 『韓國古代史研究』52.
- 이재환, 2019, 「7세기 중·후반 동북아시아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역사비평』126.
- 이정빈, 2008,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군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현실』72.
- 李昊榮, 1999, 「統一新羅 號稱 問題」, 『白山學報』52.
- 임기환, 2003, 「報德國考」, 『강좌 한국고대사 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장창은, 2014, 『고구려 남방 진출사』, 景仁文化社.
- 전덕재, 2019,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려고 하였을까」, 『역사비평』128.
- 전진국, 2016(a), 「九韓의 용례와 韓에 대한 인식」, 『新羅史學報』36.
- 전진국, 2016(b), 「삼한의 용례와 그 인식」, 『韓國史研究』173.
- 전진국, 2019, 「「청주운천동신라사적비」의 제작 연대 검토-서체와 주변 환경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184.
- 정구복 外 역주, 2012,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3·4』,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정요근 역음, 기경량 外 지음, 2023, 『신라는 정말 삼국을 통일했을까-삼국통일을 둘러싼 해석과 논쟁』, 역사비평사.
- 정덕기, 2021, 「신라 진평왕대 對隋 외교와 請兵」, 『新羅史學報』52.
- 정덕기, 2022, 「신라 진흥왕대 新州 설치와 그 목적」, 『한국고대사탐구』42.
- 정덕기, 2023(a), 「신라 진평왕대 椴岑城 전투와 功勳의 逆相續」, 『北岳史論』18.
- 정덕기, 2023(b), 「6~7세기 전반 신라 신주의 재편과 海門 당항성의 관방 체계」, 『軍史』129.
- 朱甫暉, 2007, 「金庾信의 政治志向-연구의 活性化를 기대하며-」, 『新羅史學報』11.
- 채미하, 2010, 「신라의 軍禮 수용과 王權」, 『韓國史研究』149.
- 崔根泳·嚴聖欽, 2004, 『古代韓國人名辭典』, 주류성.
- 崔豪元, 2012, 「高句麗 嬰陽王代의 新羅 攻擊과 國內政治」, 『韓國史研究』157.
- 최희준, 2022, 「644년 당의 대고구려전 파병 요구와 신라의 대응」, 『新羅史學報』54.
- 하일식, 2023, 「운천동사적비의 역사 환경, 판독 교정」, 『木簡과 文字』30.
- 한영화, 2015, 「신라의 五逆과 통치이념」, 『사림』53.

대만 中央研究院 兩千年中西曆轉換(<https://sinocal.sinica.edu.tw/>).

**【Abstract】**

## Silla's Handling of Post-wars and Its Perception of the Unification

Jung, Duk-gi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orea Military Academy)

This study examines Silla's perception in 643 of the continuity of the wars leading to the falls of Baekje and Goguryeo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andling of the aftermath of their downfall in 660 and 668-669. It also studies Silla's perception of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through the implications of the decree issued after conquering of the two kingdoms.

During the early Middle-Acient (中古) period, Silla strove for the triangular position of the three kingdoms. Its intention was to recognize the coexistence of the three kingdoms, secure Silla's hegemony over the wars, and establish Silla's dominance in the relations among the three kingdoms. In 643, Silla shifted its war objective from the triangular position to the conquest of the two kingdoms. Therefore, Silla's wars to overthrow the two kingdoms had continuity.

This influenced the post-war handling of the War of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In 668, Silla conducted heonburye offering prisoners to royal ancestral shrine and commemorating the fall of the two kingdoms. In 669, Silla promulgated the decrees notifying conquest of the two kingdoms and amnesty orders to prepare for the Silla-Tang War. The implication of the promulgation of the decree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Silla's perception of the fall and conquest of the two kingdoms was transformed into a recognition of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Keywords** : Triangular position of the three kingdoms(三國鼎立),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三國統一), Request for troop(請兵), Handling of post-war(戰後處理), heonburye(獻俘禮), the ceremony of offering prisoners to royal ancestral shrine and celebrating the victory of war